20191110-1269□-□□_□□□□□ 19. 11. 8. □□ 8:44 Page 1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 news.onnuri.org | 2019년 11월 10일(주일) 제1269호

러브소나타 구마모토에서 출연자들과 참가자들이 세레모니를 하고 있다.

행복한 사람은 함께하는 사람

러브소나타 구마모토 'Together 함께' 일본인 1,318명, 한국인 봉사자 420명 참석

이틀 동안 이어진 러브소나타 구마모토는 풍성 그 자체였다. 포문은 교회세미나가 열었다. 지난 6일(수) 구마모토 시민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교회세미나에는 일본 교회 목회자 및 리더십 180여 명이 참석했다. 박종길 목사, 이기복 목사, 김하중 장로가 강의했다. 도미조 다카시 목사(사카타 그리스도교회)는 "교회세미나에 참석하면서 한국 교회와 일본 교회가 함께 중국과 이스라엘을 선교하는 비전이 생겼다"고 고백했다.

같은 날 저녁 구마모토 시민회관 대홀에서는 러브소나타 전야제 가스펠나이트가 열렸다. 구마모토 주민들과 성도들, 한국인 봉사자 등 814여 명이 참석했다.

11월 7일(목) 오전에는 ANA크라운플라자호텔 구마모토에서 리더십포럼이 개최되었다. 한국과 일본의 리더십 160여 명이 참석했다.

대망의 러브소나타 구마모토 집회는 7일 저녁 구마모토 시민회관 대홀에서 막 올랐다. 가스펠 사역자 사루키의 공연으로 시작된 러브소나타 구마모토 집회에서는 해금연주자 조형주, 테너 배재철, 플루트연주자 송솔나무, 소프라노 김영미가 게스트로 출연했고, 이재훈 담임목사가 설교했다. 이 목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은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면서 "피조물들은 누구든지 함께 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 있다"면서 일본인 참가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다. 러브소나타 집회에는 일본인 1,318명이 참석했다. 48명이 결신하고 147명이 교회와 예수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죠슈아 형제(키야마크라이스트처치)는 문화선교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게 되었다"고 했고, 다테미츠 씨는 "한국과 일본의 크리스천들이 계속 좋은 관계를 이어나갔으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관련기사 8-9면〉**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2019 엔젤트리 사연 2,352건 접수

11월 24일부터 10개 캠퍼스 로비에 전시

사회선교부가 실시하고 있는 '2019 엔젤트리 캠페인'에 현재까지(11월 8일 기준) 사연 2,352건이 접수됐다. 가족과 이웃, 동역자들에게 진심어린 사랑을 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들이 모였다.

엔젤트리 사연 접수는 캠퍼스별로 진행했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1,782건, 양재 온누리교회 232건, 부천 온누리교회 94건, 대전 온누리교회 64건, 인천 온누리교회 163건, 양지 온누리교회 17건이다. 수원과 남양주 온누리교회는 어제(9일)까지 사연을 접수받고 집계 중이다. 평택과 강동 온누리교회는 계속해서 엔젤트리 사연을 접수 받고 있다. 올해 접수된 엔젤트리 사연은 11월 24일(주일)부터 온누리교회 10개 캠퍼스 로비에 전시할 예정이다. 온누리교회는 2015년부터 엔젤트리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매년 후원률 100%를 기록 중이다.

문의: 02-3215-2469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순예배 영상콘텐츠 시청안내

요한계시록 7:9-17 (11월 14일 본문)

본문 주제: 소망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라)

영상제목: 살아있는 소망 - 이재훈 목사

내용: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영적인 거듭남이 있다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분명하게 새 새명으로 찾아오십니다. 거듭난 새 새명이 있는 사람은 현재에 여러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세상에 대한 소망으로 기쁨이 샘솟아 납니다.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살아있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적용질문: 당신의 소망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둘 때 경험할 수 있는 풍성함은 무엇인가요?

유튜브 링크: https://youtu.be/kyCW5dPP7WI

CGNTV SO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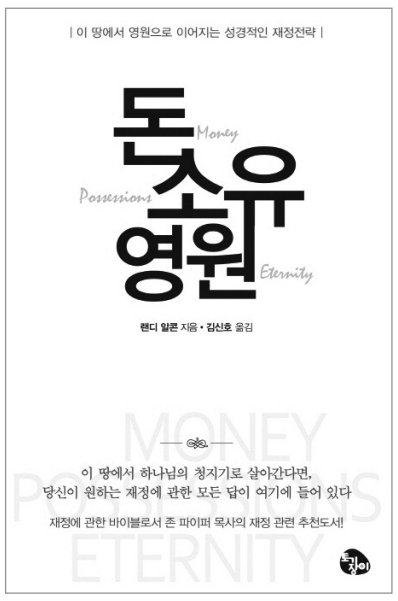
유튜브에서 'CGNTV SOON'을 검색하세요

기획_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자! 4-5면 **캠퍼스_** 남양주 대학청년부의 새 이름 다윗공동체 6면 **특집_** CGNTV가 다하지 못한 이야기 7면

20191110-1269□-□□_□□□□□ 19. 11. 8. □□ 8:44 Page 2

책 읽어주는 목회자

영원을 생각하다



〈돈 소유 영원〉
랜디 알콘 저 | 토기장이 | 28,000원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 병상 중에는 치유를, 고난 중에는 위로와 평안을, 매일의 일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살아계심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와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 성경을 펴면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음과 기도에 대한 말씀보다 두 배나 많은 약 2,350 구절에서 돈에 대해 말씀하셨다는 사실이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랜디 알콘의 〈돈 소유 영원〉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돈 소유 영원〉의 저자 랜디 알콘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깊이 생각해봐야 할 메시지를 던진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밑줄 친 성경 구절보다 그냥 지나친 구절에서 더 많이 배울 때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 우리는 마음을 울린 설교의 일부분을 적거나 성경 구절에 밑줄을 쳐서 외우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밑줄 친 말씀과 밑줄 치지 않은 말씀 모두 우리를 위해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소 지나쳤던 이 사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일까? 이 책의 저자 랜디 알콘은 "하나님께서 돈은 선한 것을 이루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선 그 자체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다"고 한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집에서 멀면 수확물의 십일조를 돈으로 교환하고, 이를 예배 장소에 와서 다시 예물로 바꾸도록 배려하셨다. 이것이 도구로서의 돈의 선한 기능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신약에서는 거룩한 성전을 장사꾼들의 터로 바꾼 것을 통해 돈의 역기능을 말씀하셨다. 즉, 우리에게 필요한 돈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넘어서는 선 그 자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단지 도구일 뿐이다.

그리고 모든 도구와 소유들은 한 가지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그것을 사용하고 소유한 사람들이 모태 죄인이라는 것이다. 사람이 지닌 죄성으로 인해 얼마든지 도구가 악하게 사용될 수 있다. 도구가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의 우상이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사울은 다윗에게 이것저것 입히고 강해 보이는 무기를 주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현실의 문제에 대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사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불안과 염려가 가득했다. 그래서 불안과 염려를 해소해주는 도구가 모든 것의 답이자 영원을 지켜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졌다. 우상숭배인 것이다.

그러나 다윗은 정확하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필요한지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맷돌만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믿고 나아갔다. 결과는 당연히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승리였다.

그렇다. 우리는 마주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불안함으로 인해 성경을 폈지만, 여전히 우리가 의지할 도구를 찾으며 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지나치고 밑줄 치지 않은 성경 말씀을 찾아 읽을 때다.

결국 답답하고 막막한 우리의 현실을 기대와 소망으로 바꾸실 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윤준석 전도사
(열린새신자예배)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

"죄인이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요"

답: "무슨 큰 죄를 저지른 사람처럼 취급당하는 것 같아 기분이 상하셨군요? 가뜩이나 살기도 힘든데 꼭 죄, 죄인, 지옥이라는 표현을 써서 부담을 주느냐는 생각이시지요? 그런데 누구나 싫어하고 꺼리는 죄를 언급하는 것은 선생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지고 있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겨 주시려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성경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11:28)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만일 오늘 밤 죽게 된다면 천국에 갈 자신 있습니까?'라는 구원의 확신을 질문한다. 만일이란 가정이 전제된 질문이지만 전도대상자들은 '죽음', '죄', '지옥', '회개'라는 단어들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하지만 죄라는 단어를 빼버린다면 복음을 설명할 수가 없다.

죄를 빼면 복음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길인지도 모르지만 자신이 죄인이고, 지옥에 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기에 죄에 대해 관심이 없다. 오히려 범죄자 취급당하는 것 같아서 기분 나빠하거나 마음을 닫아버린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눅 2:10).

복음은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복음이 부담스럽게 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의 심령이 가난할 만큼 절박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그들의 현재 삶을 전도자들이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후보다 현실에 대한 관심이 더 많다. 자신이 당면한 문제에 대한 고민 때문에 미래의 일까지 생각하는 것이 부담이라는 것을 전도자들이 이해해야 한다.

나도 처음 전도할 때 이와 비슷한 공격성 질문을 받았다. 그 질문에 내가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실제로 나는 죄가 없다고 떳떳하게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라고 하면서 논리적으로 응대했더니 싸늘한 반응만 돌아왔다. 논쟁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먼저 읽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실패를 통해 알게 되었다.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표현 방법을 바꿔보라는 마음을 주셨다. 다소 무거운 '죄'라는 말 대신 '짐'이라는 표현을 사용해보았다.

"우리가 살면서 아무 문제도 없고 좋은 일만 계속 된다면 좋을 텐데 이런저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우리 인생은 다 짐들이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짐, 자녀로서의 짐, 경제의 짐, 병의 짐 등 아주 무겁지요."

표현을 달리 한 그 말에 전도대상자들이 공감을 하면서 경청하는 것을 보았다.

"성경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짐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예수님이 그 짐을 가지고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이 평안과 쉼을 주실 수 있는 것은 나보다 더 큰 짐을 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인생의 아픔을 더 많이 경험하셨고, 더 많이 외로우셨고, 더 많이 절망하셨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 인간의 모든 죄악과 허무, 질병의 짐을 대신 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지요. 혼자 짐을 지고 쩔쩔매지 말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그 짐을 그분께 맡겨보세요."

전도의 접촉점을 '지금 짊어지고 있는 짐을 벗겨 주시는 분이 초대하신다'라고 표현했더니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우를 많이 경험했다. 아무리 행복해 보여도 사람마다 짐이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죄' 대신 '짐'이라는 표현으로 다가가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면 그때는 죄를 언급해도 거부하지 않고 인정한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시 55:22).

박인숙 권사
(신용산공동체,
〈전도여왕의 전도 레시피〉 저자)

20191110-1269□-□□_□□□□□ 19. 11. 8. □□ 8:31 Page 3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고린도전서 15:9~10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는 이 고백을 반드시 체험해야 합니다. 이 고백을 붙잡으면 부활의 생명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참된 회개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참된 고백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을 경험하는 죽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라고 할 때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일까요? 이 죽음이 의미하고 있지 않은 것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육체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반드시 찾아오는 죽음 앞에 선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나는 언젠가 죽습니다"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언젠가 찾아오는 죽음을 묵상해도 큰 유익이 있습니다. 죽지 않을 것처럼, 이 육신에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에 찾아올 죽음을 묵상해도 삶이 거룩해집니다. 만일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분명 다른 차원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육체적 죽음을 묵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정신적 죽음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정신적 죽음은 우리 영혼에 찾아오는 낙심, 절망, 포기, 좌절 등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영적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영적 죽음입니다. 영적 죽음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의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영적으로 단절 상태에 있는 죽음입니다. 분리로써의 죽음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경험하는 죽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경험해야 할 또 다른 차원의 영적 죽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죽음입니다. 예수님 죽음의 의미를 깨닫는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자신을 일치시키는 죽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 죽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죽음과 부활의 의미

하나님과 연합을 경험하는 죽음의 의미를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 죽음의 의미를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설명하는 두 가지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죄를 위해 죽으셨다"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입니다. 이 두 가지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고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해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고전 15:3).

"이는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사람을 대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벧전 3:18).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당하시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사람을 대신하셨다는 것은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우리가 동참하게 만드셨을 때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함으로 우리도 부활의 생명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놀라운 진리는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 재림 등 중요한 역사적 사건에 우리를 함께 포함합니다. 예수님만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승천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재림에 함께 연합한 자로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셨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롬 6:10~11).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을 '죄에 대해 죽으셨다'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도 죄에 대해 죽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개념을 합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 죽게 하시려고 죽으신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은 죄를 위한 죽음일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자신을 예수님의 죽음에 함께 넘기는 모든 자들을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국의 존 스토트(John Stott)는 이것을 이렇게 해설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니다. 그분과 연합한 모든 사람들도 그분의 죽음에 동참했고 그분과 함께 죽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나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믿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만 믿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살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고, 죄를 이기고, 죄로부터 분리되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어야만 하는 존재요, 동시에 살아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왜 죽어야만 하는 존재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루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사심으로 우리는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죽음, 영원한 생명의 능력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이는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 있는 사람들이 항상 예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고전 4:10~11).

10절과 11절이 유사한 문장인데 원어로는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10절의 죽음과 11절의 죽음이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10절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실제 예수님의 시신을 짊어지는 것을 묘사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죽음을 뜻하는 헬라어는 죽음에 이르는 과정 중에 있는 행동을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진다고 할 때는 그 죽어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 이르는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나타난 죽음이라는 단어는 완전히 종결된 죽음입니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과정은 대부분 10절의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음을 믿지만 여전히 죽을 몸 가운데 죄의 영향력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죽음에 처하도록 우리 옛사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완전히 묶어버려야 합니다.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예수님의 죽음에 묶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아야 합니다, 그때 완전한 죽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신 생명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함께 죽는 것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24절).

'못 박으십시오'라는 표현은 권면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료형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라는 고백은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서 날마다 매달려 있는 상태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연합하고, 계속 죽음을 경험하며, 결국 완전한 죽음에 이르는 사람이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조롱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 와보라. 네가 만일 메시아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 와보라"고 했습니다. 군중의 음성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도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못 박힌 자로 살아가려고 할 때 사탄은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욕심과 옛 성품을 통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살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살 필요가 없다. 세상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면서 끊임없이 내려오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결코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나의 자리는 십자가 못 박힌 자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을 죽음에 넘겼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묶인 자다. 그 죽음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자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고백을 합니까? 그것은 죽음에 묶인 자가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는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변화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역사적 사건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부활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13면에 계속〉

20191110-1269□-□□_□□□□□ 19. 11. 8. □□ 8:31 Page 4

기획_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자!

또 한 번 가슴에 구멍이 뚫리는 아이들

18세가 되면 아동복지시설 퇴소 … 4명 중 1명 빈곤층 전락
고아를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크리스천의 도리

아동복지시설에서 자란 청소년들은 만 18세가 되면 퇴소해야 한다. 그때부터 세상에서 홀로 살아가기 위해 치열한 싸움을 해야만 한다. 그때 누군가의 관심과 돌봄, 적절한 도움이 제공된다면 그 힘들고 외롭고 처절한 싸움이 한결 수월해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바로 그 역할을 해야 한다. 고아를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크리스천의 경건한 도리이기 때문이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만 18세가 되면 보육원을 퇴소해야 하는 이들을 '보호 종료 아동'이라고 한다. 보호 종료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 살고 있는 보호대상 아동의 연령이 만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관할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아동의 보호 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2,470명의 보호 종료 아동들이 보육원 등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했다. 성년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준비가 되지 않았어도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또래 친구들보다 훨씬 빨리 험난한 사회로 나가야만 한다.

자기 몸 누일 곳 찾아 전전긍긍… 보호 종료 아동들의 너무나 열악한 현실

가장 큰 문제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자란 이들이 보호 종료가 되어 퇴소한 다음 발생한다.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청소년 4명 중 1명이 빈곤층이나 취약계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들에게는 자립정착금이 지원된다. 자립정착금은 보호 종료 아동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지원금인데 1인당 300~500만원 정도다. 자립정착금이 이보다 적거나 아예 못 받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들에게 지원되는 자립정착금이 너무 적다. 서울 신림동 원룸 보증금이 500만 원에 월세가 40~50만 원 선인 것을 감안하면 자립정착금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 수 있다. 물론 지난 4월부터 보호 종료 아동(퇴소 2년 이내)들에게 월 30만원씩 '자립수당'이 지급되고는 있지만, 정착금과 수당만으로는 비싼 보증금과 월세를 감당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들을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이나 자립지원시설 등이 있지만 그곳에 입소하는 일은 하늘의 별 따기와 같다. '보호 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방안'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보호 종료 조치된 인원이 2,593명이다. 그 중에서 835명(32%)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LH임대주택이나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살고 있다. 나머지 68%는 스스로 월세를 부담하거나 기숙사, 친인척 집 등에서 머무르고 있다. 10명 중 7명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들을 위한 자립지원시설도 턱없이 부족하다. 자립지원시설은 아동보호시설을 퇴소한 이후 거주지를 마련할 때까지 머물 수 있는 기관인데 전국에 12개 밖에 없다. 시설 수용정원은 221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대다수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들이 자신의 몸 누일 곳을 찾아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들의 눈물 경제적 어려움, 주거문제, 심리적 부담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거주지뿐만이 아니다. 진로의 제한도 큰 압박으로 다가온다.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대다수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대학 진학보다 취업을 선택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발간한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방안〉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전체 보호 종료 아동의 대학(전문대 이상) 진학률은 13.7%에 그쳤다. 2017년 전체 고교 졸업자들의 대학진학률이 68.9%인데 5분의 1도 되지 않는다.

대학진학률도 낮지만 또래들보다 훨씬 빨리 사회로 나오다보니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2016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2017년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50.9%가 단순노무직, 서비스직에서 일하고 있다. 임금 또한 박하다.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들의 월평균 수입은 123만원이었다. 2017년 최저임금(약 135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반면 지출은 클 수밖에 없다. 월세 등 생활비로 월평균 138만원을 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자산을 형성하기는커녕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오죽하면 앞서 언급한대로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4명 중 1명이 빈곤층이나 취약계층으로 전락할까.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시설퇴소아동의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수급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5년 동안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이 된 사람이 24.4%나 됐다. 빈곤층이 되는 속도 또한 빨랐다.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88.5%가 단 6개월 만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되었다. 이 같은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통계도 있다. 2016년 보호 종결 아동 자립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어려움(31.1%)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주거문제(24.2%), 심리적 부담감(10.1%), 돈 관리 지식부족(7.7%) 등의 순이었다.

태어난 지 6,570일이 되면 다시 혼자가 되는 그들을 위해서

세상에 태어난 지 6,570일이 되면 아동복지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들은 싫든 좋든 홀로 세상에 나가야 한다. 그때부터 외롭고, 힘들고, 처절한 싸움이 시작된다. 그들은 아마 가장 빨리 빈곤의 덫에 허덕이는 사람들일 것이다. 어디 경제적 문제뿐이겠는가. 외롭고, 쓸쓸한 그 심정은 또 어떠한가. 부모 없다고, 시설에서 자랐다고 기피하거나 업신여기고, 색안경 끼고 바라보는 시선은 어찌할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자랐어도, 부모가 없어도,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어도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귀하디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이다.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돌보고, 적절한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교회와 크리스천 말고는 그 아름다운 일을 해낼 사람들이 드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그들을 어떻게 도우면 될까? 오창화 팀장(사회선교부 입양커뮤니티 제이홈)과 고아권익연대 조윤환 대표가 그 방법을 제시했다. 오창화 팀장은 멘토가 되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들은 그야말로 기댈 곳 하나 없는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입양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엄청난 빚을 감당하셨는데, 정작 우리는 기댈 곳 하나 없는 그들의 빚을 갚아줄 생각조차 못하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합니다.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아동복지시설과 결연을 맺어서 그들의 멘토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고아권익연대 조윤환 대표는 아동복지설 퇴소자들에게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가족이 되어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혼자라는 사실만큼 서러운 게 없습니다.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들에게 정말 따뜻하고, 포근하고, 사랑을 듬뿍 주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교회와 크리스천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신 14:29).

또한 성경은 고아를 돌보는 것이 곧 크리스천의 경건한 삶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약 1:27).

20191110-1269□-□□_□□□□□ 19. 11. 8. □□ 8:31 Page 5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아동의 이름

우리가 100만 고아들의 눈물을 닦아줍시다!

조윤환 대표
(고아권익연대,
1급 사회복지사)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아동의 이름이 무엇일까? 나는 고아라고 생각한다. 자신을 지켜주고, 지지해주고, 사랑해줘야 할 부모가 버린 존재가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인 고아이다.

나도 고아이다. 1985년 화창한 어느 여름 당시 7살이던 나를 어머니가 고속터미널에 데려갔다. 잠시 기다리라고 하고 사라졌는데 그것이 어머니와의 마지막이었다. 아무리 기다려도 어머니는 오지 않았고, 그 길로 나는 시설에 넘겨졌다. 나를 발견한 경찰은 유기범(부모)에 대한 조사나 실종신고 혹은 어떠한 조치나 기록도 하지 않고 그냥 시설에 넘겨버렸다. 어머니의 손을 놓친 지 불과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나는 가장 불쌍한 이름인 '고아'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다. 지금도 생각한다. 만약 그때 조금만 인내를 갖고 부모를 찾아줬으면 어땠을까? 고아원에 내던지듯 보내지 말고 입양할 부모를 만나게 해줬다면 고아라는 주홍글씨를 달고 다니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시설(보육원) 생활은 정말로 비참했다. 수많은 아이들 속에서 사랑은 고사하고 조금의 관심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는 생존능력이 뛰어나야 한다. 일을 시키면 땀을 가장 많이 흘려야 하고,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힘 있는 선배한테 상납해야 한다. 선배들의 눈을 절대로 봐서도 안 된다. 거짓말 같지만 선배들이 똥을 먹으라면 먹는 시늉을 해야 했다. 안 그러면 진짜 죽기 때문이다. 실제로 선배들에게 대들었다가 호미에 찍혀서 평생 뇌전증을 안고 사는 아이들을 종종 봤다. 힘을 키워서 싸움을 잘하지 않는 한 죽으라면 죽는 시늉을 해야만 살 수 있었다. 이쯤에서 궁금할 것이다. 원장님과 시설의 선생님들은 과연 무엇을 했을까? 그들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문제가 외부에 알려지면 그들도 책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고아원 내부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아무리 심각해도 얼른 덮고 무마시키는 것이 불문율이었다. 이처럼 고아원에서의 생활은 그야말로 지옥이 따로 없었다. 얼마나 많이 맞았으면 당시 고아원 동기가 이런 말을 했을 정도다.

"고아원에서 맞은 것밖에 기억나는 게 없다. 고아원의 '고' 자도 듣기 싫다."

만 18세, 퇴소 후에 찾아온 더 큰 고난

만 18세가 되었다. 나도 여느 보육원 동기들처럼 시설을 퇴소해서 사회로 나오게 되었다. 의지할 곳도, 상담할 곳도 없었다.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하는 기분이었다. 겨우 지하 단칸방에서 보육원 동생들 10명과 칼잠을 자며 힘들게 살았다. 대학 졸업 이후 취업을 하려고 면접을 볼라치면 고아라는 주홍글씨가 취업의 문을 막았다. 그나마 선심을 베풀 듯 동정하는 마음으로 고용한 회사와 사람들도 내가 잘못하면 "역시 고아는 안 돼"라고 쓰디쓴 말을 내뱉으며 해고했다.

외롭고 힘들었던 나는 빨리 결혼해서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다. 정말 운 좋게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었고 여자친구의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날이었다. 그런데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조부모라도 있으면 어떻게 생각해 보겠는데, 고아라 안 되겠다."

지금의 아내는 두 번째 여자친구이다. 다행히 장인, 장모님께서 입양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셨던 분이셨다. 장인, 장모님은 아들을 입양하는 마음으로 고아 사위를 맞이해주셨다. 그 기쁨과 감격도 잠시, 이번에는 아내와 단둘이 살 신혼집을 구하는 게 문제였다. 살 집이 있어야 하는데 모아둔 돈이 없었다. 결국 처남이 살던 전세집 방 한 칸을 빌려 신혼살림을 시작했다. 당시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 대한 주거 지원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었다. 임대아파트나 취약계층의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알아봤는데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만 있지 나 같은 고아나 보육원 퇴소자들을 위한 혜택은 없었다. 얼마나 막막하고 서러웠던지 보건복지부에 전화를 걸어 울면서 호소했던 기억이 있다.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들을 위한 집을 마련해 달라고 애원했다.

보육원이 폐쇄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을 떠나지 못했던 선배가 하나 있었다. 그 선배는 폐허가 된 시설에서 전전긍긍했다. 지금은 생사를 알 수 없다. 그 선배는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살아있을까? 죽었을까? 고아는 죽는 순간에도 철저히 외로운 존재이다. 무연고자 사망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무연고자 장례는 가족이 나타날 때까지 10년 동안 유골을 보관하고 있다가 기간이 지나도 가족에게 인도되지 못하면 공원부지에 매장되거나 자연장으로 처리된다. 고아한테 가족이 어디 있겠는가? 결국 슬퍼하는 이 하나 없는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고아들의 슬픈 숙명이다.

고아는 그저 피해자일뿐이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고아를 단순히 불쌍한 아이, 자선을 베풀어야 할 대상으로 보고 동정했다. 이는 고아들의 눈물과 한은 외면한 일방적 접근이다. 고아는 취약계층이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일방적으로 정의하고, 걸인에게 적선하듯 동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평생 고마워하며 살아라", "부모도 버린 너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준 것만으로 평생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라"며 상처를 주기도 한다.

> **"이 땅에는 100만 명의 고아들이 존재한다.
> 그들의 한과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
> 그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라!"**

그러나 고아는 명백한 피해자이다. 1차 가해자는 그들을 버린 부모이고, 2차 가해자는 그런 부모의 유기범죄를 제재하지 않고 오히려 가해자를 두둔한 국가이며, 3차 가해자는 '오죽하면 버렸겠어'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회이다. 결국 가해자는 우리 모두인 것이다.

고아들은 만 18세가 되면 더욱 냉혹한 현실에 처하게 된다. 보호 종료가 돼 그동안 살아온 시설에서 퇴소해야 한다. 보육원 퇴소자들의 상황이 매우 열악하다. 백석대 교정보안학과 김안식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교도소 수용자들의 경우 교정시설 퇴소 이후 절반 이상이 다시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로 들어오는데 반해, 보육원 퇴소자들은 상황이 더욱 심각해서 80% 이상이 교정시설로 다시 들어온다. 한번 보육원을 퇴소하면 더 이상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갈 곳이 그곳밖에 없다.

교도소, 군대, 보육원 등 대표적인 수용시설의 처우를 비교해 봐도 고아들의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알 수 있다. 세 군데 수용시설 모두 식사를 제공해주고, 옷을 입혀주고, 잠을 재워주고, 소정의 교육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교도소와 군대의 경우 상담 프로그램이 있지만 보육원에서는 원아들의 상담이 미비하다. 범죄자와 군인들은 이유야 어찌됐든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지만, 고아는 부모로부터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다. 부모가 없기 때문이다. 인권보호 및 감독 실태도 교도소와 군대에 비해 보육원이 더 나쁘다. 폭력과 학대 정도는 또 어떠한가? 교도소가 가장 적고 다음이 군대, 그리고 보육원이다. 보육원에서 발생하는 학대가 가장 많다. 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에도 차이가 있다. 교도소와 군대는 피해보상을 해주지만 보육원에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 세 군데 수용시설의 가장 큰 차이점은 퇴소 이후 대책이다. 교도소와 군대를 퇴소하면 가족들에게 돌아가지만, 고아들은 보육원을 퇴소하면 갈 곳이 없다. 한 조사에 따르면 보육원을 거쳐 성인이 된 아이들의 자립률이 7%도 되지 않는다. 나머지 93%가 교정시설에 수용되거나 노숙을 하는 셈이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사 1:17).

여기서 '신원'의 의미는 '가슴에 맺힌 원한을 풀어버리다'는 뜻이다. 이제 사회가 바뀌어야 한다. 먹고 살기 힘들다고 자식을 보육원 등의 시설에 맡기고 나 몰라라 한 부모들은 뒤늦게라도 그 자녀에게 사죄와 용서를 구했으면 좋겠다. 국가는 고아들이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퇴소자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강화해야 한다. 보호자도 없고, 제대로 된 사회적응 교육도 못 받고 거리로 내몰리는 고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정해져있다. 범죄에 빠지거나, 윤락가로 빠지거나, 생활고를 못 이겨 사채를 쓰고 빚더미에 앉는 것이다. 그들을 위한 멘토링, 상담 프로그램이 더욱 많아져야 한다. 사회는 '오죽하면 버렸겠니'라는 폭언을 함으로써 고아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을 삼가야 한다. 그들이 보육원 퇴소 이후에도 사회에 잘 적응해서 정상적인 궤도에 오를 때까지 인내와 배려, 사랑으로 따뜻하게 맞아줘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고아들을 돌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고통받던 60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출해내셨다. 이 땅에는 100만 명의 고아들이 존재한다. 100만 고아들의 한과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그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라!"

20191110-1269□-□□_□□□□□ 19. 11. 8. □□ 8:31 Page 6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공동체!”

남양주 대학청년부의 새 이름 ‘다윗공동체’

남양주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새 비전을 선포하며 그 이름을 ‘J1공동체’에서 ‘다윗공동체’로 바꿨다. 다윗을 따라 삶과 공동체와 열방을 품고, 세우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공동체가 되겠다는 포부와 소망이 담겨 있다. 지난 3일(주일) 다윗공동체가 첫 예배를 드렸다. 이름부터 비전까지 모든 것이 새로워진 다윗공동체 첫 예배를 축하하는 발걸음이 이어졌다. 지난 15년 동안 남양주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를 이끌고 섬겼던 선배들도 참석했다. 그 뜻 깊은 자리에 다녀왔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여기는 남양주 온누리교회 본당. 오후 2시 대학청년부 예배를 준비하는 스태프들의 손길이 몹시 분주해 보인다. 복도에 나와 예배드리러 온 청년들을 맞이하는 청년들도 보이고, 본당에서는 찬양팀의 연습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삼삼오오 모여 앉은 청년들이 일주일 동안의 삶을 나누며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평소와 크게 다를 것 없어 보이는 풍경이지만 오늘 예배는 무엇인가 특별하고 설렘이 가득하다. 왜냐하면 남양주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공동체’라는 새 비전을 선포하며 공동체 이름을 ‘J1공동체’에서 ‘다윗공동체’로 바꾸고 처음으로 예배드리는 날이기 때문이다. 2019년 11월 3일부터 남양주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의 이름은 ‘다윗공동체’다. 남양주 온누리교회의 새로운 비전을 이루는데 대학청년부가 견인차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같이 결정했다.

남양주 온누리교회는 창립 15주년을 보내면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며(행 15:16)’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 무너진 예배와 삶, 공동체를 회복하고, 열방을 세워나간다는 포부를 담고 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과 열정,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했던 마음을 기억하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윗의 장막이 되기로 결정했다. 남양주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도 이에 발 맞춰 공동체 이름을 다윗공동체로 변경하고 새 비전에 동참하기로 했다. 앞으로 남양주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는 성령을 통해 삶을 세우고, 예배를 통해 공동체를 세우고, 선교를 통해 열방을 세워나갈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공동체가 되겠다는 남양주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의 포부가 무척이나 근사하고 돋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남양주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가 '다윗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삶과 공동체, 열방을 품고 세운다

다윗공동체 첫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의 표정에 설렘이 가득했다. 청년들의 발걸음에는 기쁨이 묻어있었다. 다윗공동체 첫 예배에는 아주 특별한 손님들도 참석했다. 남양주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의 시초 느헤미야공동체(성벽을 재건하라는 의미)와 J1공동체(Jesus First,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자는 의미)를 섬기던 선배들이다.

다윗공동체 첫 예배에 참석한 선배들은 새로운 비전과 새 이름을 선포한 후배들을 축하하고 응원했다. 선배들의 응원과 격려만큼 후배들에게 힘이 되는 것이 없었다.

이날 한자리에 모인 선후배들은 남양주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의 역사를 살펴보고 비전을 공유했다. 남양주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사진들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청년들 가슴에 새겼던 꿈과 비전, 사랑과 희망을 다시 한 번 떠올렸다. 그러면서 지난 15년 동안 남양주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를 이끌고 섬겼던 선배들의 조언과 응원에 힘입어 남양주 온누리교회의 앞으로 15년을 책임지고 이끌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초창기 남양주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를 섬긴 박민정 자매(우수교회)는 “다윗공동체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응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은정 자매(SNS공동체)는 “남양주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는 정말 귀한 공동체”라면서 “다윗공동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더욱 빛나는 공동체 되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다.

오예송 자매(다윗공동체)는 “다윗공동체와 함께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뜻 깊고 의미 있다”면서 “지치거나 소외되는 지체 없이 모두 함께 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서로를 섬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제영 형제(다윗공동체)는 “다윗처럼 기쁘게 찬양하는 공동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고백하는 공동체, 남을 세우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길 바란다”고 소망했다.

다윗공동체 회장 이영혜 자매(다윗공동체)는 “다 함께 모여 다윗공동체의 이름과 비전을 세우는 과정이 너무 설레고 행복했다”면서 “다윗공동체라는 이름에 걸맞게 삶과 공동체와 열방을 품고 세울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사역칼럼

세우는 사람, 다윗공동체

허원희 목사
(다윗공동체)

‘세우는 사람, 다윗공동체’ 남양주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의 새 이름이다.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새로운 예배당 부지를 확정하고 창립 15주년 감사예배를 드리면서 ‘다윗의 장막’이라는 비전을 선포함과 동시에 대학청년부도 공동체의 이름을 ‘다윗공동체’로 바꾸고 그 비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기로 다짐했다.

나에게는 다윗공동체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다. 2001년 서빙고 온누리교회 대학부가 출범할 때 이름도 다윗공동체였기 때문이다. 당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대학부는 양재 온누리교회의 바울대학부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신설되었는데 바울대학부는 학생 수도 많았고, 아웃리치도 활발하게 해서 명실공히 대학부의 명예를 세워가는 공동체였다. 그런 상황에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또 다른 대학부를 시작해야 했기에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다윗’이었다. 다윗은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찾아가서 아들들을 다 불러오라 했을 때 아버지 이새의 머리 속에 존재조차 없었던 어린 목동이었다. 형들에게 무시당하고, 언제나 들판에서 홀로 노래하고 찬양하며 외로움을 달랬던 다윗이 떠올랐다.

다윗은 약해 보였지만 결코 약하지 않았다. 존재감이 없었으나 하나님 앞에서 거인으로 자라고 있었다. 결국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적장을 무너뜨리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성장하게 된다. 다윗처럼 서빙고 온누리교회 대학부도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바울대학부처럼 성장하게 되었다.

벌써 15년 전 이야기다. 나는 당시 이야기를 무용담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50대 중견 목회자가 되었고, 대학생 나이의 아들을 둔 아버지가 되었다. 어느 날 이해영 목사님(당시 청년부 사역)이 나에게 남양주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를 맡아달라고 하셨다. 아마 그때의 추억을 되살려 대학청년부를 새롭게 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웬 대학청년부?’라는 생각을 했지만 목사님의 속뜻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새로운 마음과 꿈을 부어주셨다. 지난 1년 동안 J1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대학생들과 나름 열심히 뛰면서 그동안 잊고 있던 청년사역에 대한 감을 조금씩 찾았다. 청년들에게 무슨 설교를 해야 할지 몰라 청년 관련한 글들을 열심히 읽었고, 대학생들과 카페에서 대화하면서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했다. 때마침 교회가 다윗의 장막이라는 비전으로 새 성전을 향해 갈 때 내 머리 속에 다윗이라는 이름이 다시 떠올랐다. 무척이나 막막하고 존재감이 없던 시절 큰 용기로 다가왔던 다윗이라는 이름이었기에 다시 사용해보고 싶었다. 남양주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가 다윗 못지않게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라는 믿음과 가능성을 붙잡고 작은 다윗들이 되어보려고 한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잠 못 이루는 초등학생처럼 두 번째 시작하는 다윗공동체를 기대한다. 전쟁과 업적을 좋아했던 청년시절을 지나 찬양과 기도에 전무했던 노년의 다윗처럼 영적으로 성숙해진 다윗공동체의 미래를 꿈꾸며 조심스레 한 걸음 내딛어 본다.

20191110-1269□-□□_□□□□□ 19. 11. 8. □□ 8:31 Page 7

온누리신문 · CGNTV 공동기획

CGNTV가 다하지 못한 이야기

"기도해드려도 괜찮을까요?"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는 청년 '조셉 붓소'

"기도해드려도 괜찮을까요?"
삶에 지친 누군가에게 이보다 따뜻한 말이 또 있을까? 날마다 길거리에 나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따뜻한 말을 건네는 이가 있다. 그 주인공은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의 가족도, 친구도 아니다. 목회자도 아니다. 외국인 청년이다. 그 청년의 이름은 '조셉 붓소'다. CGNTV가 조셉 붓소의 이야기를 방영하자마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어떻게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고, 어쩜 그렇게 용기 있게 전도할 수 있는지 큰 감동과 도전을 줬기 때문이다. 넌크리스천들도 조셉 붓소와의 만남을 환영하고 있다.
그 멋진 청년의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된다. CGNTV가 '붓소핸섭 시즌2'를 방영한다. 붓소핸섭은 조셉 붓소와 CGNTV가 함께하는 길거리 전도프로젝트다. CGNTV '붓소핸섭 채널'에서 만나볼 수 있다. CGNTV가 다하지 못한 조셉 붓소의 숨겨진 이야기를 소개한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조셉 붓소 형제는 거리로 나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준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인터뷰를 끝내고 그 형제에게 기도를 부탁했다. 그 형제의 기도를 받는 순간 하나님이 왜 이 청년을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지를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그 형제는 스치듯 나누었던 작은 이야기들까지도 모두 기억하고 기도에 담아냈다. 기자의 개인적인 고민과 비전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 형제의 기도에는 힘이 있었다. '하나님이 이 형제의 기도를 받게 하시려고 나를 이 자리로 초대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감동적이었다.
그 청년의 이름은 조셉 붓소(Joseph Butso)다. 한국 이름은 최준섭, 나이는 스물일곱이다.

한국과 사랑에 빠지다

조셉 형제는 미국 오하이오 주에서 태어나고 조지아 주에서 자랐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한국에 있을 때 비로소 삶의 목적을 깨달았다고 할 정도로 조셉 형제에게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다. 한국의 언어와 문화, 정서, 음식 그 모든 것들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한국을 너무나 사랑하는 이 형제는 외국인이 맞나 싶을 정도로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 아삭한 김치와 구수한 된장찌개를 정말 좋아한다. 감기에 걸리면 홍삼액을 챙겨 먹고, 식당 주인아주머니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넉살을 떠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가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처럼 느껴진다.
조셉 형제가 한국의 매력에 푹 빠진 게 된 것은 학창시절 우연히 들은 K-POP의 영향이었다. K-POP은 조셉 형제의 귀를 단숨에 사로잡았다. 노래를 들을수록 한국어가 너무나 아름다웠다. 이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에 꼭 가고 싶다고 생각했다. 조셉 형제는 한국에 오려고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했다.
조셉 형제는 대학생 시절 여름방학만 되면 한국을 찾았다. 친구 부모님이 운영하는 게스트 하우스에서 생활하면서 한국 구석구석을 여행했다. 여름방학마다 한국을 찾아오는 조셉 형제를 위해 친구 부모님이 가까운 교회를 소개해주셨다.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조셉 형제는 교회에 가는 일이 너무 신나고 행복했다.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 또 한 번 한국에 반했다.
"한국어로 된 찬양을 듣는데 너무 아름다웠어요. 가사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멜로디와 몇 마디 찬양 가사들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 얼마나 좋을지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 뒤로는 한국에 올 때마다 한국 교회를 일부러 찾아다녔어요."

"조셉, 나를 사랑하니?"

대학 졸업을 몇 달 앞두고 한국에 갈 생각을 하면서 즐거운 나날을 보내던 조셉 형제가 하나님께 질문했다.
"한국에서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곧바로 응답하셨다. 평소 음악을 좋아하고, 재능이 있던 조셉 형제에게 "가수가 돼라"고 말씀하셨다. 생각지도 못한 음성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어보기로 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붙잡고 한국에 왔다. 그리고 여러 오디션 프로그램에 도전했다. 하나님의 응답이었으니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계속 되는 실패에 낙심이 찾아왔다. 고시원에서 생활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에 있는 가정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
"당시에는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믿고 왔는데 어려움이 한꺼번에 닥치니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낮추시기 위해 준비하신 시간이 분명해요."
하나님께 기도밖에 할 수 없던 조셉 형제는 우연한 기회에 '연탄365'라는 팀을 만나게 됐다. 거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팀이었다. '가스펠스타C'라는 CCM오디션 프로그램에 도전할 기회도 찾아왔다. 우승하면 한국에서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한 정말 좋은 기회였다. 이번에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 같았다. 그런데 우승은 다른 팀에게 돌아갔다. 크게 낙심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했다. 상황이나 여건이 나아진 것이 없었는데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했다. 그날 오디션 장소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기 때문이다.
조셉 형제는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우연히 특순 찬양을 듣게 됐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찬양이었다. 그 찬양을 듣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다. 그리고 그 순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하루 종일 그 음성이 귓가에서 맴돌았다. 무대를 마치고 내려와서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날 저녁 하나님은 "조셉, 나를 사랑하니?"라고 질문하시면서 다시 그를 찾아오셨다. 조셉 형제는 망설임 없이 "당연하다"고 대답했다. 하나님은 "너의 삶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니?"라고 다시 물으셨다. 조셉 형제는 그 순간 떠오르는 말씀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4:13).

그가 매일 길거리로 나서는 이유

그날 이후 조셉 형제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로 했다. 하나님은 조셉 형제의 삶을 전도자의 삶으로 바꿔나가셨다.
조셉 형제는 '너의 목소리가 보여'라는 음악프로그램에 참가해서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고 얼굴을 알렸다. 그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버스킹사역을 멈추지 않았다. 아니 더 열심히 했다. 2016년에는 CGNTV와 인연을 맺게 됐다. CGNTV는 조셉 형제의 이야기를 KNOCK 미니휴먼다큐로 만들어서 세상에 내놓았다. 음악으로 하나님을 전하고 싶다는 조셉 형제의 삶과 신앙, 찬양, 복음 메시지를 담은 영상이었다. 18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고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다. 그리고 올해 CGNTV에서 '붓소핸섭'을 시작하게 됐다. 조셉 형제가 길거리에서 찬양하는 것을 넘어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일상을 생생하게 담은 프로그램이다. 지난 1일(금)부터 '붓소핸섭 시즌2'가 방영 중이다.
"붓소핸섭은 정말 감사한 사역이에요. 붓소핸섭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제 믿음이 더욱 커져간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더 큰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조셉 형제에게도 전도는 쉬운 일이 아니다. 거절을 당할 때도 있고, 이유 없이 욕을 먹기도 한다. 그때마다 상처를 받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아무리 힘이 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한 영혼을 만나러 거리로 나서고 있다. 매일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조셉 형제에게도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제목이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으로 세우는 사람이 될 수 있게 기도해주세요. 붓소핸섭 전도프로젝트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세요. 사랑하는 저의 가족과 친구,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을 더욱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CGNTV 후원문의: 02-796-2243
후원계좌: KEB하나은행 573-910002-67804

20191110-1269□-□□_□□□□□ 19. 11. 8. □□ 8:31 Page 8

Love Sonata 에서 만난 사람

구마모토에서 가장 젊은 목회자 오쿠보 노조무

어르신을 전문적으로 섬기고, 지역 교회 연합 꿈꾼다!

오쿠보 노조무 목사 가족.

구마모토 교계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인구고령화 문제를 피해가지 못하고 있다. 구마모토에 있는 교회 대부분이 60대 이상 성도 비율이 가장 높다. 젊은 성도수와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난다. 그만큼 교회가 고령화 되었고, 교회 고령화 현상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구마모토 교계에서 젊은 목회자를 찾아보기가 힘든 지경이다. 지난해 일본침례교회연맹(일본에서 세 번째로 큰 교단) 신학교에서 배출한 젊은 목회자가 10명 남짓뿐이고, 올해 신입생은 2명밖에 없다고 한다. 일본침례교회연맹보다 큰 교단에서도 이 같은 상황은 비슷하다. 조금 나을 뿐이지 큰 차이가 없다. 젊은 목회자들 손에 구마모토 교계, 나아가 일본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볼 수 있는데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번 러브소나타 구마모토에서 희망을 발견했다. 그토록 귀한 젊은 목회자가 구마모토 교계의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었다. 그 주인공은 구마모토에서 가장 젊은 목회자 오쿠보 노조무 목사(그리스도성교단구마모토교회, 27세)다. 그는 러브소나타 구마모토 실행위원이기도 하다.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비전

오쿠보 노조무 목사는 목회자의 자녀다.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지만 중학생 때까지 자신이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누군가 그에게 종교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없다고 할 정도였다.

"성경은 익숙했는데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머니의 권유로 성경캠프에 갔다가 그곳에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오쿠보 노조무 목사는 여동생을 따라 신학교에 입학했다. 목회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은 없었다. 단지 크리스천들과 교제가 하고 싶어서 진학했다.

"제 주변에 크리스천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공동체에서 생활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신학교에서 크리스천들과 생활하면서 정말 좋았습니다. 진로에 대해 고민할 때는 저의 능력이 부족해서 목사는 할 수 없을 거라고 스스로를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갔다가 예수님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깨닫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교단에서 1년 동안 인턴십을 하고, 3년 전 구마모토 그리스도선교단구마모토교회에 담임목회자로 부임했다. 그리스도선교단구마모토교회는 성도 10여 명이 출석하고 있다. 어르신들이 대부분이다. 오쿠보 목사와 가오리 사모가 찬양, 설교, 식사, 주일학교를 섬기고 있다.

오쿠보 목사는 교회 운영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평일에 3일씩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구마모토에서는 오쿠보 노조무 목사뿐만 아니라 수많은 목회자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교회를 운영하고 생활비를 벌고 있다. 목회를 하면서 생업까지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 때로는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고 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그 어려움 정도는 넉넉히 이겨낼 자신이 있다.

오쿠보 노조무 목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비전이 있다. 하나는 '고령자선교'다.

"교회가 어르신들을 섬기는 일은 너무나도 당연한 책무이자 역할입니다. 지금 일본 사회와 교회가 빠르게 고령화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을 전문적으로 어르신들을 섬기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그 비전을 주셨습니다. 어르신들을 전문적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저와 같은 비전을 가진 동역자가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곧 둘째 아이도 태어나고, 우리 부부가 감당할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가 중심을 잃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비전은 '지역 교회 연합'이다. 이 비전은 러브소나타 구마모토를 준비하면서 생겼다. 일본 교회는 교단 단위로 움직인다. 한 지역에 같은 교단의 교회가 없다 보니 지역 교회가 교류할 일이 거의 없다. 목회자들이 서로의 얼굴만 아는 정도다. 지난 10년 동안 구마모토에서 지역 교회가 연합한 집회는 단 두 차례뿐이었다. 오쿠보 노조무 목사는 러브소나타 구마모토 가스펠나이트 위원장을 맡았는데 12개 교회 80여 명의 성도들이 가스펠나이트를 섬기겠다고 신청한 것을 보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믿지 않는 주민도 헌신하겠다고 해서 더욱 놀랐다.

"구마모토에 있는 교회들이 꾸준히 교류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연합하면 모두에게 유익일 수밖에 없고, 다음세대를 섬기고, 주민들을 전도하는 데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러브소나타 집회에서 만난 사람들

"모두 Real soup!"

"러브소나타 후쿠오카 가스펠나이트에 참석해서 오이타 가스펠콰이어의 찬양을 듣고 '나도 음악을 활용해서 선교를 하고 싶다'는 비전이 생겼습니다. 음악과는 거리가 먼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해낼 수 있다고 믿고 작사, 작곡, 뮤직비디오 촬영까지 마쳤습니다. 그 노래의 제목이 'Real soup'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진국처럼 살아간다면 세상이 좋아진다는 의미와 영혼의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두 Real soup!"

/ 박진국 자매(여호수아 공동체)

"락밴드가 가스펠밴드로!"

"저는 도쿄, 후쿠오카, 구마모토 러브소나타에 게스트로 참석한 사루키 밴드의 사루키입니다. 저는 2003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저 혼자 크리스천이었는데 2015년 기타를 치는 모리까지 세례를 받으며 팀 전체가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작사를 할 때마다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락밴드가 가스펠밴드로 변화된 것입니다. 러브소나타에 참석할수록 저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스펠밴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 사루키 형제

"25년만의 예배"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나갔는데 진학을 하면서 부모님 곁을 떠나고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러브소나타 구마모토 집회에 부모님의 초대로 딸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25년 만에 예배를 드리면서 어렸을 때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특히 이재훈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러브소나타 구마모토에 초대해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집회가 있다면 또 참석하고 싶습니다."

/ 다나카 상

20191110-1269□-□□_□□□□□ 19. 11. 8. □□ 8:31 Page 9

구마모토의 기독교 역사 탐방

신앙은 박해한다고 사라지거나 핍박한다고 타협하지 않는다!

구마모토는 17세기 막부의 폭정에 항거한 3만5천여 크리스천들의 눈물겨운 투쟁과 순교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구마모토 순교사건 이후 막부의 크리스천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구마모토 순교사건이 벌어지고 약 200여 년 뒤 길고 길었던 크리스천 핍박이 끝이 났다. 그리고 1876년 1월 30일 구마모토 청년 35명이 하나오카산 정상에 올라 기독교를 일본 전역에 전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바로 그들이 일본의 3대 교파 중 하나인 조합교회의 시류가 되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아마쿠사시로박물관에 전시된 불상 뒤의 예수 조각상(위), 하나오카산 구마모토 밴드 비석(아래).

구마모토는 일본 기독교 역사에서 의미가 깊은 지역이다. 구마모토는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초까지 일본에서 가장 기독교가 부흥한 지역 중 한 곳이었다. 당시 구마모토 인근 나가사키에 흑선을 타고 온 외국 상인들과 선교사들이 많았다. 그들은 선진 문물을 활용해서 적극적인 선교활동을 이어나갔다. 당시 구마모토는 5명의 영주가 다스렸는데 그들 모두 선진 문물에 관심이 많았다. 당시 구마모토 영주 5명은 선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라 기독교로 개종했다. 영주를 따라 휘하의 주민(3만 명 이상)들도 기독교로 개종했다.

그런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규슈(구마모토가 속한 섬)를 정벌하면서 구마모토는 남북으로 나뉘어 관리했다. 임진왜란에 참전했던 고니시 유키나가(아마쿠사제도, 우토성)와 가토 기요마사(구마모토, 구마모토성)가 각각 구마모토 남쪽과 북쪽을 관리했다.

고니시 유키나가는 이름난 무사이자 크리스천이었다. 고니시 유키나가가 다스리는 구마모토 남쪽의 아마쿠사제도는 인구가 3만 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크리스천이 2만3천 명이었다. 고니시 유키나가는 성안에 크리스천 교육시설을 둘 정도로 열성적인 신자였다.

고니시 유키나가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사람이었는데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죽임을 당한다.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할복을 할 수 없어서 참수를 당한다. 고니시 유키나가의 죽음 이후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본격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했다. 당시 아마쿠사제도 주민들은 수입의 절반을 세금으로 바쳐야 했고, 다른 종교로 개종을 하지 않으면 끔찍한 고문이나 죽임을 당했다. 엄청난 폭정과 박해를 참다 못한 3만5천 명의 크리스천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를 '시마바라의 난' 이라고 한다.

시마바라의 난은 '아마쿠사 시로' 라는 16세 소년이 주도했다. 16세 소년이 지도자가 되어 3만5천 여 크리스천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 구마모토에 '아마쿠사시로박물관' 이 있다. 그곳에 가면 당시 주민들의 신앙생활 흔적과 시마바라의 난에 대한 자세한 기록들을 살펴볼 수 있다. 당시 크리스천들에게 자행되었던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는 물건들도 많다. 당시 크리스천들은 불상 뒤에 예수를 조각해 놓고 평상시에는 앞면을 보이게 놓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 때는 불상을 돌려 뒷면의 예수를 바라봤다고 한다.

아마쿠사 시로는 하라성을 점령하고 90일 동안 농성을 이어갔다. 아마쿠사시로박물관에 그 치열했던 전투 현장이 생생하게 재현되어 있다. 막부의 진압군은 아마쿠사 시로에게 여러 차례 항복을 권유했지만 그는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항거한다. 그리고 3만5천여 크리스천들과 함께 순교한다. 아마쿠사 시로는 복음을 위해 싸우다 죽은 순교자, 민중을 위해 싸운 정의의 투사로 기억되고 있다.

아마쿠사 시로의 시마바라의 난 이후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기독교를 철저하게 박해했다. 다섯 가정을 묶어 서로를 감시하게 하고, 한 명이라도 크리스천이 나오면 다섯 가정 모두를 몰살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주민들에게 예수를 조각한 동판을 밟고 지나가라는 강요도 했다. 그 살벌한 핍박 속에서도 신앙은 지켜졌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1802년 아마쿠사에서 크리스천 5,200명이 발각됐다. 그러나 당시 영주가 "종교적 착각에 의한 믿음이었다"며 무죄판결을 내려 목숨을 지킬 수 있었다. 1865년에는 아마쿠사에서 멀지 않은 나가사키에 프랑스 신부가 찾아 왔다는 소식을 듣고 크리스천 2만 명이 운집했다. 이처럼 신앙은 박해한다고 사라지거나 핍박한다고 타협하지 않는다. 바로 그 진리를 구마모토에 서린 순교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다.

그리고 1876년 1월 30일 청년 35명 산에 오르다

일본의 크리스천 박해는 1873년 막을 내렸다. 그리고 3년 후인 1876년 구마모토의 청년 35명이 구마모토시내 하나오카산에 올랐다. 일본 전역에 기독교를 전파하겠다는 믿음의 선언하기 위해서였다. 이 모임은 구마모토의 유학자 중 한 명이었던 요코이 쇼난이 개설한 구마모토 양학교에서 시작되었다. 요코이 쇼난은 일본에 존재하던 신교와 불교는 모두 황폐되었고, 유교는 문예화 되어 국가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기독교의 우수성을 인정한 그는 구마모토 양학교에 미 육군대위 출신의 제인스를 교사로 초빙했다.

제인스는 평신도였지만 청년들과 교제하고 성경을 공부하는데 힘썼다. 그가 복음을 전한 학생이 30~40명에 달했고 그들은 기도모임과 성경공부를 매우 즐거워했다. 그리고 1876년 1월 30일 청년 35명이 구마모토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하나오카산에 올라 믿음의 서약을 했다. 이를 '봉교취의서' 라고 한다.

"우리는 기독교를 배우면서 깨우치는 바가 매우 컸다. 이후 이를 배울수록 기쁨이 얻어진다. 그래서 이 기독교를 일본전역에 전도하고 국민을 계몽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후략)."

청년들의 믿음의 서약은 말 그대로 목숨을 건 서약이었다. 크리스천 박해가 끝난 지 불과 3년 밖에 지나지 않아서 크리스천을 박해하는 문화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구마모토에는 그 문화가 더 강했다. 자녀들이 스스로 크리스천으로 개종하고, 믿음의 서약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어머니들이 자결을 할 정도였다. 그래도 청년들은 신앙을 지켜냈다.

봉교취의서를 낭독한 청년들의 모임을 '구마모토 밴드' 라고 부른다. 구마모토 밴드는 초기 일본 개신교의 원류로 평가받는다. 일본에는 요코하마 밴드, 구마모토 밴드, 삿포로 밴드가 있다. 구마모토 양학교가 폐쇄 된 이후 믿음의 서약을 한 청년 10여 명이 교토의 도시샤 신학교에 진학했다. 그들의 제자들이 일본의 3대 교파 중 하나인 조합교회를 결성했다.

구마모토 시내가 한 눈에 보이는 하나오카산 정상 공원 한 쪽에 봉교취의서와 35명의 청년들을 기념하는 비석과 야외예배 장소가 있다. 매년 1월 30일 그곳에서 일본복음화와 일본을 기독교 정신으로 이끌어가겠다고 다짐하는 새벽기도를 드리고 있다.

구마모토는 한국인들에게 사랑 받는 도시다. 구마모토를 찾는 관광객 중에서 한국인이 가장 많을 정도다. 또한 구마모토는 한국과 기나긴 악연이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구마모토를 다스린 가토 기요마사와 고니시 유키나가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에 참전했기 때문이다. 특히 가토 기요마사는 선봉장으로 조선을 휩쓸고 다녔다. 메이지 유신 이후에는 낭인들을 모아 조선을 정벌해야 한다는 정한론을 주장한 지역이기도 하다. 구마모토 낭인들이 명성황후를 시해했다. 그 낭인들의 후손들이 '명성황후를 생각하는 회' 를 만들어 참회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들어 구마모토를 찾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눈에 띄게 줄었다.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신앙을 지켜낸 구마모토의 선조들처럼 우리도 러브소나타 구마모토를 계기로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한일관계를 지혜롭고 현명하게 풀어냈으면 좋겠다.

20191110-1269□-□□_□□□□□ 19. 11. 8. □□ 8:31 Page 10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운다"

남양주 온누리교회 창립 15주년 감사예배

남양주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창립 15주년을 맞아 지점토로 장미꽃을 만들어 로비를 장식했다.

지난 3일(주일)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창립 15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남양주 온누리교회는 '다윗의 장막'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

다윗의 장막이라는 비전은 남양주 온누리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어서 삶과 공동체와 열방을 품고 세우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남양주 온누리교회 창립 15주년 감사예배에서는 1부 이재훈 담임목사가 설교하고, 백진주 교수(UCLA 음악학 박사)가 특순했다. 2부에서는 이해영 목사(남양주 온누리교회 담당)가 설교하고, 백진주 교수, 한선(국악 찬양팀)이 특순했다.

이해영 목사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순수한 예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는 깨끗한 꿈"이라면서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다윗처럼 삶과 공동체와 열방을 품고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승우 집사(남양주 온누리교회)는 "하나님께서 남양주 온누리교회의 앞으로 15년에도 더 큰 은혜로 함께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대전, 청년연합집회 '홀리임팩트' 개최

11월 20일 저녁 7시 30분 대전 온누리교회

대전 온누리교회가 오는 11월 20일(수) 저녁 7시 30분 본당에서 청년연합집회 '홀리임팩트'를 개최한다. 대전지역 대학생들과 청년들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이날 청년연합집회에서는 원유경 목사(SNS공동체)와 대청밴드팀 홀리임팩트가 찬양을 인도하고, 메시지는 김승수 목사(대청본부장)가 전한다.

김상수 목사(대전 온누리교회)는 "이번 청년연합집회 홀리임팩트를 통해 대전 지역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공유하는 영적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동행

사회선교부 제이홈 입양 위탁 설명회

제이홈(사회선교부 입양커뮤니티)에서 개최하는 '입양 위탁 설명회'가 다음 주일(11월 17일) 오후 6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신관 2층 꿈아이홀에서 열린다.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동행'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입양 위탁 설명회는 한화수 목사(제이홈 담당)의 말씀 및 예배, 대한사회복지회 김수진 부장의 입양위탁 안내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입양 및 위탁에 관심 있는 가정이나 성도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문의: 010-2049-8210

"세상 그 어떤 공연보다 훌륭한 공연"

강동 사랑부합창단 제4회 정기연주회

지난 2일(토) 강동 사랑부합창단 제4회 정기연주회 '동쪽하늘 무지개'가 강동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열렸다. 강동 사랑부 지체와 부모, 교사, 강동 온누리교회 성도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강동 사랑부합창단 정기연주회 '동쪽하늘 무지개'에서는 가요, 동요, 찬송가,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의 곡들을 선보였다. '과수원길',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등 주옥같은 레퍼토리로 좌중을 감동시켰다.

연주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찬사를 쏟아냈다. 백덕심 권사는 "세상 그 어떤 공연보다 훌륭한 공연이었다"면서 "그들이 무대에 올라가기까지 헌신한 많은 이들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오준현 전도사(강동 사랑부 담당)는 "2016년 시작한 사랑부 정기연주회가 벌써 4회째 이어지고 있는 것은 오직 은혜"라며 "강동 온누리교회에 사랑부합창단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이들을 헌신적으로 섬기는 교사와 부모님들께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수요여성예배 여성전도집회 개최

수요여성예배에서 11월과 12월 캠퍼스별로 여성전도집회를 개최한다. 부천 11월 20일 '영화음악과 함께하는 가을콘서트', 남양주 11월 20일 '가을콘서트', 인천 12월 4일 'Christmas for you', 서빙고 12월 11일 'Christmas for you', 강동 12월 18일 '성탄, 당신을 향한 사랑', 양재 12월 18일 'Christmas for you'를 주제로 진행한다.

대전은 지난달 30일 '가을콘서트'를 주제로 여성전도집회를 열었다. 총 145명이 참석했고 10명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

NGO 더멋진세상 동부아프리카 전략회의

르완다에서 지난달 28부터 이달 2일까지

NGO 더멋진세상이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동부아프리카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동부아프리카 전략회의에는 르완다, 우간다, 말라위 3개국에서 사역자 17명이 참석했다.

동부 아프리카 전략회의에서는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그동안의 사역 성과와 문제점 등을 공유했다.

그러면서 ECD 운영 및 교사 교육, 농업 교육, 현지 사역자 교육 등을 위한 인적 교류를 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인 부룬디를 NGO 더멋진세상의 신규 사역지로 개척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두란노어머니학교 본부 111기 모집

11월 13일~12월 11일 오전 10시 시온홀

두란노어머니학교 본부 111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11월 13일부터 12월 11일까지 5주 동안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시온홀에서 진행된다.

두란노어머니학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경건한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을 배우고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참가신청은 전화나 어머니학교 홈페이지(www.mother.or.kr)에서 하면 된다. 어머니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회비는 12만 원.

문의: 02-2182-9114

새가족 등록을 축하합니다

교적번호	성 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 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 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 명	공동체
1137932	여루디아	평택	1137956	김화숙	인천 미추홀	1137979	안효진	여호수아	1138002	심태희	여호수아
1137933	박호영	수원 북누리	1137957	신지현	양재	1137980	김성원	여호수아	1138003	이채윤	여호수아
1137934	정호영	양재특별초대	1137958	정경옥	분당A	1137981	김유진	여호수아	1138004	김민주	여호수아
1137935	신경애	양지 동누리	1137959	조권희	분당A	1137982	엄성훈	여호수아	1138005	오태성	여호수아
1137936	박미연	강남D	1137960	정해일	송파B	1137983	권승용	여호수아	1138006	오어진	여호수아
1137937	정영광	북누리	1137961	김 원	S브릿지	1137984	정지완	여호수아	1138007	강수민	송파B
1137938	김형준	고양은평	1137962	이민희	S브릿지	1137985	안하은	여호수아	1138008	고 운	부천 소망
1137939	박지수	SNS	1137963	진용의	송파B	1137986	류리나	여호수아	1138009	강승훈	허브
1137940	양희웅	SNS	1137964	김은정	영등포구로	1137987	오선택	여호수아	1138010	강정민	허브
1137941	조 현	SNS	1137965	정희정	J4U	1137988	이시영	여호수아	1138011	양은영	허브
1137942	김연수	SNS	1137966	이유진	J4U	1137989	김용환	여호수아	1138012	장예진	허브
1137943	최창수	SNS	1137967	엄유진	J4U	1137990	권상큼	여호수아	1138013	심재원	중종로
1137944	강연희	SNS	1137968	김학성	J4U	1137991	김은지	여호수아	1138014	유희정	허브
1137945	이현혜	SNS	1137969	송해리	J4U	1137992	신기영	여호수아	1138015	임채영	허브
1137946	강수지	SNS	1137970	김승환	J4U	1137993	김민아	여호수아	1138016	오혜수	허브
1137947	양희원	SNS	1137971	최지우	J4U	1137994	박진선	여호수아	1138017	박명희	노원
1137948	장재하	SNS	1137972	심규홍	강남B	1137995	오서환	여호수아	1138019	유사라	강촌
1137949	전상현	SNS	1137973	임은희	부천 소망	1137996	신경하	여호수아	1138020	정재훈	양재
1137950	윤재석	SNS	1137974	강두수	여호수아	1137997	이왕재	여호수아	1138021	한가현	대전 드리머스
1137951	김슬기	SNS	1137975	박준민	여호수아	1137998	윤지우	여호수아	1138028	김유진	경기A
1137952	김미리	SNS	1137976	박정홍	여호수아	1137999	송은지	여호수아	1138054	박세령	양재
1137953	김은지	송파B	1137977	문희정	여호수아	1138000	이수민	여호수아	1138055	이하민	강남D
1137955	고성태	S브릿지	1137978	이지석	여호수아	1138001	최진태	여호수아	1138056	허인숙	관악금천

양재 11월 새가족 만남의 잔치

일시: 11월 17일(주일) / 오후 3:30 장소: 양재 온누리교회 드림홀
대상: 10월 6일~11월 2일 등록 성도

강남A	강남B	강남D	분당A	서초C	송파B	양재
방은희	김미진	박미연	이희재	박찬형	강수민	신지현
이미란	김성환	최은지		이미선	김영주	조현정
정낙용	김은자		분당B		김은지	
조선경	김지선	도곡	김태웅	송파A	정해일	
	유희안	강미정	우동호	박현미	진용의	
	최선미	최영지				

20191110-1269□-□□_□□□□□ 19. 11. 8. □□ 8:31 Page 11

▌입교 간증

매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 최시온 학생(서빙고 파워웨이브)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교회에 대한 마음이 자꾸 변하기 시작했다. 친구들은 주일에 늦잠을 자고, 놀러도 가는데 우리 집은 내 의사와 상관없이 늘 아침 일찍 일어나 교회를 가야했기 때문이다. 억지로 교회에 가도 목사님의 설교는 지루하고 졸리기만 했다. 성경 말씀도 믿어지지 않았고, 무의미하게 앉아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았다. 그래도 부모님한테 혼이 날 것 같아 매주 억지로 교회를 다녔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자꾸만 짜증과 원망이 솟구쳤다. 어느 날 동생에게 물어보았다.

"너는 하나님이 믿어지냐?"

동생이 눈을 크게 뜨며 "형은 안 믿어져? 형, 그러면 하나님한테 혼나!"라며 기분 상하는 말만 했다.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동생의 모습에 짜증이 났고, 거기에 더해서 목사님처럼 형인 나에게 설교하려고 하는 것도 어이가 없었다. 나는 그 이후로 점점 부모님 말씀과는 거리가 먼 행동을 하게 되었다. 교회에도 나가지 않게 되었다. 그렇게 중학교 생활을 마치고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음악을 공부하게 되었다. 그런데 가곡을 공부하던 중에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유럽의 거의 모든 음악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내 마음속에 점점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궁금증을 품게 되었다.

우연히 동생 방에서 큐티노트를 보고 깜짝 놀랐다. 동생의 큐티노트에 이렇게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 우리 형 빨리 정신 차려서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형이라는 이유로 늘 동생을 놀리기만 하고 괴롭혔는데 동생은 도리어 나를 위해 기도했다니. 마음이 뭉클했다. 그리고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요즘 파워웨이브는 창조신앙을 주제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강의를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예전에는 믿어지지 않았던 창세기가 믿어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시작된 나의 믿음이 입교교육을 통해 더욱 명확해졌다.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사실로 알고 믿게 되었다. 믿음을 더 강하게 하고, 붙잡기 위해 매일 큐티하며 진심으로 예배드리기로 작정했다. 물론 이것이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안다. 그래서 매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이다.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더 알아가기를 원한다.

▌해피맘 간증

엄마가 행복해야 가정이 산다

/ 서현정 성도(서빙고 온누리교회)

나는 교회에 다닌 지 3년밖에 되지 않았다. 결혼하고 6년 동안 아기가 생기지 않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나왔는데 한 달 만에 사랑하는 딸을 얻었다. 나는 딸을 통해 하나님을 기적적으로 만났다. 어렵게 얻은 딸을 주님의 아이로 잘 키우고 싶은 마음에 친언니의 권면으로 어머니학교에 등록했다. 하나님의 자녀 된 정체성을 넘어 이제는 어머니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남편과 자녀를 섬기고 사랑으로 품으며, 주님의 가정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어머니학교 과정을 수료하고 곧바로 해피맘을 권유받았다. 작년 10월 유산한 둘째가 떠올라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첫째 아이를 주신 감사를 뒤로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통해 나를 재차 해피맘으로 불러주셨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해보자'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했다.

해피맘에서는 9명이 한 조가 되어 소모임을 했다. 불신자도 있었고, 깊은 상처가 있는 분들, 자녀와의 관계회복을 위해 오신 분들도 많았다.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인 자리라 그런지 8주 동안 우여곡절이 많았다. 섞이지 않을 것 같은 공동체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만져주셨고, 서로를 위해 시간을 정해놓고 중보기도하며 하나 되게 하셨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게 하셨다.

해피맘을 통해 또 하나 주신 선물이 있다. 둘째 아이다. 난임이었던 나에게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또 자연임신을 허락하셨다. 기쁜 마음으로 해피맘 단체채팅방에 초음파 사진을 올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렸고 모두에게 축하와 축복의 기도를 받았다. 어머니학교에서는 큰 상처들이 치유되고 어머니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게 되었다면, 해피맘에서는 나머지 작은 상처들이 치유되고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됐다. 회복 과정에서 가정을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을 자연스레 배우게 되었다. '엄마가 행복해야 가정이 산다'는 것은 진리인 것 같다. 엄마 스스로 행복해지는 길은 하나님과 친밀해야 가능하다. 항상 말씀과 예배, 기도로 무장해서 우리 가정부터 주님의 가정으로 세워가고 싶다. 해피맘 식구들의 중보기도 덕분에 기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되었다. 이 자리를 빌려 강사님과 9명의 자매님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고 싶다.

▌대학청년부 가을愛블레싱 후기

내 교회처럼 아끼고 사랑해야겠다

/ 평다영 자매(요셉공동체)

4년 전, 함께 대학부를 다녔던 친구의 권유로 1년 정도 파주에서 군 교회 사역을 하게 되었다. 매주 주일 사역을 하면서 받는 은혜와 즐거움이 많았지만, 온전한 내 예배를 지키기 위해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요셉 공동체를 다니게 되었다. 얼마간의 군교회 사역을 마무리하고 다른 사역지로 옮겼지만 장병들을 볼 때마다 늘 반가운 마음이 들곤 했다. 그러다 요셉 공동체에서 주일에 포천 벧엘공병교회로 ODO(One Day Outreach)를 간다는 소식을 들었고, 다시 장병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 6월부터 함께 하게 됐다.

벧엘공병교회 사역이 두 달에 한 번씩이라 마음만큼 많이 가지는 못했지만 장병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삶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은 내게 많은 위로가 되었다. 늘 장병들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평일에는 본인의 일과를 하고 주말에는 예배를 위해 힘쓰는 군종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도 감사했다. 특히 매주 찬양과 예배를 준비해야 하는 군종병들을 대신해 찬양팀을 만들어 섬기면서, 실력은 부족하지만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 참 즐겁고 기뻤다.

이번에는 대학 청년부에서 연중행사로 진행하는 '가을愛블레싱'으로 벧엘공병교회를 다시 방문했다. 교회에 모인 군종병들, 성도님들, 호기심으로 찾아온 군인들과 함께 사랑의 식탁을 나눴고 순 예배도 드렸다. 이곳 장병들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순 예배를 손꼽아 기다린다는 말에 마음이 뭉클했다. 매주 군 교회를 다녔을 때는 친밀감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들을 잊고 기도하지 못한 것이 속상했다. 그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기도하는 것은, 곳곳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다가 가장 빛나는 2년의 시간을 헌신하는 이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다.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장병들을 위해서 다시 기도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며, 이 교회를 내 교회처럼 아끼고 사랑하고자 오늘도 기도한다.

▌NGO 더멋진세상 실행위원 간증

긍휼 베푸는 선한 사마리아인

/ 김문갑 실행위원(NGO 더멋진세상)

NGO 더멋진세상에서 키르기스스탄의 한 마을에 보건소를 지어줬다. 나는 실행위원 자격으로 준공식에 참석했다. 인천에서 카자흐스탄 알마티까지 약 7시간 비행한 다음 비행기를 갈아타고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까지 1시간을 더 가야 하는 긴 여정이었다.

마을에 들어서자 군수와 면장급 보건소 관계자, 마을 사람들이 전통복장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고, 옷도 남루하지만 얼굴형은 한국 사람과 비슷해서 참 정겹고 친근하게 느껴졌다. 이곳 사람들은 아프면 군 소재지까지 가야 진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 진료소가 생겨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소련이 무너진 이후 이곳 주민들이 가장 불편을 겪는 분야는 의료와 교육이었다. 과거에는 무료진료와 무상교육 혜택을 받았는데 지금은 병원을 지을 돈이 없고 가까운 병원도 없다. 언뜻 봐도 주민들에게는 의사와 병원 등 치료시설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보건소 준공식이 끝나고 군 병원 관계자가 병원을 꼭 보여 주고 싶다고 제안해서 돌아오는 길에 방문했다. 소련 때 만들어진 3층 건물인데 환자를 이송하는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서 간이침대에 환자를 눕혀 사람이 층계로 환자를 이동시킨다고 했다. 1년에 10만 명의 산모가 그 병원에서 출산을 하는데 하나 밖에 없는 중고 인큐베이터가 너무 귀하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우리나라 70년대 방식을 사용하는 x-ray 장비와 거의 쓰려져 있는 격리병동 등은 말할 것도 없이 열악했다. 그럼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무슬림이지만 토착 민속종교 정도로 여기고 있었다. 과격한 무슬림의 모습은 볼 수 없었고 우리의 옛 시골사람들 같았다. NGO 더멋진세상의 보건과 교육 분야 지원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강도 만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직접적인 복음전도가 아니지만 충분히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20191110-1269□-□□_□□□□□ 19. 11. 8. □□ 8:31 Page 12

크리스마스 선교사 자녀 선물 보내기

1. 선물 준비 방법

1) 각 공동체 선교사역자가 주관하여 다락방(순)에서 준비합니다.
2) 주소 확인: 선교사의 주소를 확인합니다.(국내에 계신 선교사 포함)
※ 보안지역에 계시는 선교사에게는 한국에 있는 선교단체로 소포비와 함께 선물을 보냅니다.
3) 편지 쓰기: 지나치게 형식적이지 않도록 하며, 순원들이 돌아가며 적는 방법도 좋습니다.
※ 편지에 반드시 각 공동체의 선교사역자 및 다락방장의 주소, 전화, 이메일을 기록하여 선교사와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4) 선물준비
① 선물은 우편요금과 배달과정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② 실용적이며, 부피가 가볍고 깨지지 않는 것으로 적당한 가격 수준에서 준비해 주십시오.
③ 우체국 기준에 맞게 소포 포장을 하시면 됩니다.
④ 작은 선물이라도 선교지에서는 큰 기쁨과 위로가 됩니다.
⑤ 해외 송금보다는 현지 선교사님 가정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정성으로 준비하십시오.
⑥ 현지 도착 날짜를 고려하여 11월 중으로 발송해 주십시오.

2. 선물 준비 시 고려사항

1) 선교지의 기후를 고려합니다.
2) 자녀의 연령을 반드시 확인하여 수준에 맞는 선물을 준비합니다.
① 자녀는 고3 및 12학년(2001년생 이후 출생자)까지 기재가 되어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각 공동체 선교사역자님들께 선교사 자녀 선물보내기 주소와 명단을 메일로 발송)
②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선물(자녀수와 연령 확인 필요): 학용품 (크레파스, 연필, 공책, 스티커, 물감, 사인펜 등) 부피가 크지 않고 깨지지 않는 장난감, 옷, 모자, 책(동화, 위인전, 교양만화, 학습지 등).
3) 보안지역에는 기독교 관련 음반, 서적, 비디오, 액세서리 등의 품목을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보안지역 유의사항

1) 보안지역이란?
※공산권, 이슬람권 등 선교사의 선교활동을 금하고 선교사로는 비자가 제한되는 지역.(선교사의 사역과 신분을 보장하기 위함)
※앞서 안내 드린 바와 같이 보안지역으로 보낼 경우 기독교 관련 선물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편지 내용에도 기독교 관련 용어를 삼가시고, 사용하실 경우 보안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보안용어와 보안지역의 자세한 내용은 공동체리더십 분들에게 메일로 안내 드렸습니다.
2) 보안지역 안내
① 공산권
② 이슬람권
③ 힌두교권
④ 불교권
⑤ 각 공동체는 기록된 선교지 주소로 소포 포장을 하여 선물을 발송합니다.
보안지역(수신주소가 선교 단체로 되어있음)의 경우에 소포 포장을 하여 소포비와 함께 선교단체로 발송합니다.(단, 예수전도단YWAM은 직접 공동체에서 발송합니다)

4. 문의

2000선교본부
강유선 간사: 02-3215-3208
elly82@onnuri.org

5. 우체국 요금

※자세한 사항(규격, 요금, 중량 등의 접수조건/통관/우편물 종 추적(행방조사) 등)은 우정 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나 우체국 대표 전화(1588-1300)로 문의 바랍니다.

6. 선교단체 연락처

단체	주소	문의
두란노해외선교회	(17156)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 62 3층	02-794-1063
비전빌리지 훈련팀	(17156)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 62 2층	031-331-8100
경배와 찬양	(04384) 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1길 54번지	02-796-9700
더멋진세상	(04553) 서울 중구 삼일대로 4길 9, 501호	02-2271-2246
바울 선교회	(5493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조경단로 61 2층	063-254-8418
빌리온 선교회	(08778)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 58길 20 2F	02-879-1191
알타이 선교회	(06052)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32길 22, B01호	02-576-8503
중동 선교회	(05818)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06 (가락동 한일빌딩 선교제일교회) 4층 401호	02-402-2062
중국복음선교회	(04516) 서울시 중구 정동 25번지	02-778-3626
BEE KOREA	(06912) 서울특별시 동작구 매봉로 2길 18	02-822-9480
Cornerstone (모퉁이돌)	(06104) 서울 논현동 우체국 사서함 8호 135-660	02-796-8846
FMnC 선교회	(06698)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6 세중빌딩 4층	02-848-6251
GBT 선교회	(13943)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안양판교로 20 신한데뷰 오피스텔 406호	031-421-5324
GMF 선교회	(07976)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본로2길 46-25	02-2653-4270
GMP 개척 선교회	(0372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14길 25	02-337-7191
GMTC 선교훈련원	(07976)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본로18길 78	02-2649-3197 070-4066-0114
GO 선교회	(32564) 충청남도 공주시 우금티로 549 2층	041-852-1040
GP 선교회	(058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말로 8길 17	02-443-0883
HOPE 선교회	(06336) 서울특별시 강남우체국 사서함 1052호	070-4006-5300
Inter-CP	(04386) 서울특별시 용산우체국 사서함 120호	070-8787-8800
InterServe 선교회	(1361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 코오롱트리폴리스 A동 1206호	070-4352-6510
OM 선교회	(1361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느티로 73(정자동) 현대빌딩	031-698-2372
OMF 선교회	(06554)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 29길 21 호언빌딩 2층	02-455-0261
SEED선교회	(0668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19길 68, 202호	02-521-0791
UPMA 선교회	(08500)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마산로 76 한국세계선교협의회 4층 UPMA	02-815-4052
WEC 선교회	(06776)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11길 7-17 숭진빌딩 4층	02-529-4552
YWAM(예수전도단)	(08814)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7나길 14 (사)예수전도단 / 문의가능 / 물품 공동체 직접 발송	02-322-0563
안산M센터	(1524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온누리M센터	031-491-9650

부탁드립니다

가장 위대한 선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물은 우리를 찾아 오셨던 예수님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탄절을 기뻐하고 기념합니다. 올해도 기쁘고 감사한 절기를 맞이하며 선교 현장에서 변함없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자녀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부모님을 따라 선교지로 간 선교사 자녀들에게 성도님들의 정성과 기도가 담긴 선물을 보내고 축복해주시면 어떨까요?

고국에서 보낸 정성 어린 선물이 선교사 자녀들을 함박웃음 짓게 할 것입니다. 척박한 땅에서 생활하는 그들의 마음에 촉촉한 은혜의 단비가 될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선물을 가진 우리가 선교사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면서 풍성한 성탄절을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 이경희 목사(2000선교본부)

선교지에서 온 편지

더 큰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때는 희망이 사라졌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은 기대를 발생시키고, 기대는 노력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노력 뒤에 실패가 온다 해도 희망이 계속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약 1년 동안 준비해 온 코이카사업을 수주하는데 결국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가슴이 뜁니다. 왜냐하면 더 큰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약 2개월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래를 준비시키심을 느꼈습니다. 첫 번째는 장애인 재활에 대한 분야를 보게 하셨습니다. 이곳의 한 장애인 재활재단 원장님과 관계를 갖게 되면서 큰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곳의 장애인들을 위해서 재활과학대학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중앙아시아B국의 장애인들을 돕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등을 제작하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사업을 코이카사업으로 준비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저와 함께 동역하시는 분이 밀알심장재단의 중앙아시아B국 대표가 되었습니다. 100명의 아이들을 선정하고 수술이 진행되는 과정을 관리하는 일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는 현지인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아주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패 뒤에 희망을 두셔서 절망이 아니라 기대를 갖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 번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 주성열, 박하향 선교사(중앙아시아B국)

20191110-1269□-□□_□□□□□ 19. 11. 8. □□ 8:31 Page 13

주일강단

〈3면에 이어〉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고난 앞에 서 보면 압니다. 위기 앞에 서 보면 압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할 때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고백 앞뒤에 사도 바울은 답답한 일을 경험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항상 예수님의 죽음에 자신을 넘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고후 4:8~9).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 사람은 쇠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고후 4:16).

여러분, 사도 바울의 믿음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모두가 낙심하는 상황인데 낙심하지 않는 비결, 모두가 절망하지만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 모두가 좌절하지만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 말입니다. 우리 삶에는 때로 죽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죽음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육체적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육체적 죽음과 정신적 죽음이 가져다주는 스트레스와 낙심과 절망과 좌절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낙심과 절망, 답답한 일, 모든 고난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밀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죽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자신의 자아를 완전히 일치시켜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될 때 놀랍게도 육체적, 정신적 죽음의 고통을 이기는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생명이 나의 죽을 육체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고 승리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로 끝나지만 그 의미는 "나는 날마다 살아나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겉 사람은 날로 쇠하나 나의 속사람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라는 고백은 "나는 날마다 살아나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죽지 않도록 죽게 하소서."

앞의 죽음은 하나님과 내가 분리된 죽음입니다. 뒤의 죽음은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죽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라고 고백한 바로 그 죽음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삶의 시련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다른 사람이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간에,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여러분을 넘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4장 13절에서 "우리는 바로 그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고 또한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은 하나님 편에서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에 대해 죽는 삶을 경험하려면 우리의 자유의지로 스스로를 포기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자아를 내어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를 죽은 자로 여겨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간주해야 합니다. 자유의지를 포기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전부가 되시도록 주께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나의 자유의지로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결심과 발걸음을 내딛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보혈의 역사와 능력이 임함으로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됩니다.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육체적, 정신적 죽음으로 인한 삶의 고통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욕심에 대하여, 환경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는 고백을 반드시 체험해야 합니다. 이 고백을 붙잡으면 부활의 생명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일대일 동반자반 수료자

동반자	양육자
서빙고	
■ **강서**	
나대균	김일수
나희정	유미숙
이동호	장성권
이상수	배기선
이호군	이석원
이호정	이경자
이효영	이순희
최준호	김진하
■ **강촌**	
김보화	박해령
■ **고양은평**	
김애란	김미경
이경미	송요나
이상흠	변철석
이지은	차금숙
■ **관악금천**	
강혜련	김경희
배란희	문지영
이증락	주수일
임형빈	김주형
전소영	김연정
■ **김포**	
권영신	유혜정
노세민	유경우
■ **노원**	
배상우	김영손
원혜경	문춘옥
■ **동대문중랑**	
김희경	김행자
홍지만	김건국
■ **동작**	
반하니	김영숙
이은숙	오용순
임애금	박은미
조연주	이신숙
■ **마포**	
권혜경	김성신
안미영	이홍선
제준남	김성신
■ **서대문**	
박미숙	김덕현
박선미	서영주
정인덕	김성욱
■ **서빙고**	
김수진	김준영
정성남	이찬묵
정성림	이정희
최정숙	한성자
■ **서산 온누리**	
김민영	이효정
김예림	함은혜
김은정	장옥이
김하은	이효정
이만현	정호영
최재호	양태노
현도원	오선영
■ **성동광진**	
김정민	류기선
박현준	이병민
이소희	조선미
이주원	서경주
허정우	김성수
■ **성북**	
김갑록	김신광
김지훈	전훈효
서인숙	김옥주
최은영	하종숙
■ **신용산**	
곽현진	신성내
김덕진	윤상진
김인교	박수진
이창근	이용수
이현애	박혜정
이현우	박종열
정혜진	곽재연
■ **양천**	
김민선	연명은
김태은	이화숙
박연숙	정은경
박풍호	현선웅
전양백	김태호
■ **여의도**	
조상명	정용모
■ **영등포구로**	
채송화	양유진
허유나	김자연
■ **용산**	
유선윤	정현주
유승윤	최지니
이지현	김문수
이축복	김만규
이하림샘영	이영선
■ **이수**	
김형숙	김영숙
박예림	김경선
배성문	임용민
허은정	정임채
■ **이촌**	
김광석	김성태
박성민	이기영
유영일	손영자
■ **일본어예배**	
이주찬	신동천
■ **일산**	
정석원	강정호
■ **중국어예배**	
MA XIAOYANG	CHE LIHUA
■ **중종로**	
한명철	조재관
김춘희	조명자
김헌국	김성현
지은실	이희옥
■ **한강**	
김민영	임경선
김영석	지용화
박지호	이경숙
복유정	오정원
천새봄	심민자
최문원	이혜경
■ **한터**	
백은실	강영임
송바울	김춘택
■ **공동체없음**	
김영찬	김신유
김영화	이수진
문경민	이용구
민지원	오효순
백진주	유진희
이금나	이주연
이동영	정광수
이루다	김인옥
이재의	정우성
이현경	송주영
이현정	황윤정
이혜원	이현수
최성지	최정아
■ **OCC**	
CHO DABREL	김규남
■ **OEM**	
김수정	제갈샘
김호연	김희숙
■ **S브릿지**	
김재연	이일지
이동희	김은수
정현진	송용자
최은영	김진아
양재	
■ **강남A**	
강은주	성근정
김숙자	이경실
김영은	장은영
김장효	문익주
이승철	이장춘
조아라	이정숙
■ **강남B**	
구연미	이현숙
김주현	박종미
나윤정	남동규
맹지선	이현정
손익찬	안명상
신혁승	권혁회
유선미	조미혜
이승표	양윤석
장화진	한연선
정영현	이준구
진희경	박종미
추정화	조연익
■ **강남C**	
양은영	하선희
■ **강남D**	
고근나	우정현
김세영	황인경
김은영A	신연선
박은솔	이숙경
이하민	박주현
■ **경기A**	
고재천	권해옥
이규영	박현미
이월숙	박찬란
이진숙	박성숙
이혜욱	양상용
하선정	진선미
■ **도곡**	
김상범	황성용
김윤정	백기현
이승자	이진우
주미수	심지영
주순식	황의서
최신애	김기원
최영인	권애화
■ **분당A**	
박인숙	김명리
■ **분당B**	
고영숙	황윤주
김지연	김소운
한만서	장성수
■ **서초A**	
김준수	오창현
조은진	문자영
■ **서초B**	
고영미	유홍봉
성지숙	장정순
손종욱	송기선
유영길	정회석
조승옥	신지미
황선주	신지미
■ **서초C**	
박재현	조진호
박주성	최형기
한영진	유숙영
홍성아	김재열
■ **서초D**	
박지윤	이승희
홍승표	정철윤
■ **송파A**	
강상우	엄종훈
권태형	손수용
김명철	임영빈
김혜영	임용자
박현미	박영란
이민경	조인화
이재봉	장우현
임채영	최병철
전성복	이민종
정성오	김인선
■ **송파B**	
김중백	김종흘
서소피	김수연
신보미	하윤경
■ **양재**	
강성호	최재원
김유진	김수정
김찬의	전병진
박태섭	엄선관
이관우	조태희
이진아	장인옥
장은효	김연정
정영선	이경숙
정창욱	김영관
조용희	장창남
지용희	심형미
최재은	정윤자
황지애	이은숙
■ **푸른누리**	
강승우	장상원
김성우	박주오
이나라	조은영
장지민	최은지
■ **특별한초대**	
현 아	이지예
■ **하나**	
한순애	이석미
■ **Bridge33+**	
김시인	정세미
손종우	장민구
조은정	박주란
허혜진	이민경
홍준배	고석봉
■ **Harmony**	
정수영	동우진
최혜순	정미경
■ **Point5**	
강유리	조옥환
노윤지	정선주
박고은이	이승연
성예진	은미숙
심호술	김동수
정재훈	박창규
조대익	신 헌
허혜린	이지선
대청	
■ **길**	
김나연	김소연
서은화	주미랑
유덕희	김경희
■ **여호수아**	
김경미	권연주
김민경	원경화
김민환	우청석
김소정	김은정
김영훈	이승준
김유경	박종미
문정민	전경진
백은미	박선향
송나라	안혜성
송 선	노정숙
송혜란	박혜린
신상미	임미경
안현선	장덕희
양지영	이명순
이승희	강경아
이재찬	박제한
이정현	허란경
이준희	정부은
이지원	정현정
이환희	김현정
임혜영	백현경
장 미	신윤옥
장시온	윤선민
조숙진	이경현
조원록	신승국
최하영	윤선희
한송이	백지영
한재희	이혜옥
■ **요셉**	
김영은	김승한
김유정	이현철
서여민	이설희
이지혜	이현철
장해연	이현철
지유라	김미숙
한용태	신재영
황인영	한기원
■ **하늘**	
권효준	안직현
김윤민	최은정
남은혜	이성옥
안유빈	강 건
최정은	안영미
■ **허브**	
권소향	임명원
권준희	이준영
김우정	임경은
나혜정	윤혜신
민주원	김경훈
이소향	명재은
홍승호	이효일
황채영	전새하
■ **CH630**	
서성우	이준호
■ **J4U**	
권준철	황성주
김성민	박재형
김주희	이승윤
문인영	함민정
이기쁨	이종훈
이우성	이상훈
이현정	변진숙
정국성	변성찬
조혜연	정수정
최재성	이재학
황호준	김성훈
■ **SNS**	
강혜정	최지니
김동욱	김용환
김민국	홍기만
김지성	김희정
박세진	하지혜
박안나	백경화
박지은	오미영
손 결	장재근
유승주	홍민순
유호석	김영욱
윤주하	정종희
윤진희	양희정
이경미	이주숙
이서아	지영미
이수영	임지원
이은나	장선미
이재휘	제무성
이중헌	성창섭
이지혜	박미선
■ **W**	
김봉경	이광건
박지현	송기현
배미례	이시연
신다슬	최문경
이서형	이애연

일대일 양육자반 수료자

수료예배: 11월 17일(주일)(서빙고 3부 예배, 양재 2부 예배)

서빙고 수료대상자: 서빙고 본당 우측 성가대석 앞

양재 수료대상자: 양재 사랑홀

대상자: 9월 1일~10월 31일 사이에 사이에 완료보고한 성도입니다.

서빙고				
■ **3040 김효구 장로반**		■ **이상기 장로반**		■ **김승훈 목사반**
고현우	이민우	김기혁	백귀영	김금순
김인선	이수철	천종웅	서명하	김문정
김정민	이장웅	한정훈	성하영	박성희
김택성	장미정	**양재**	안현정	서연희
김한수	조현옥	■ **김대진 목사반**	이광표	유선주
박철용	허준영	김율이	정성종	최소영
박혜진	황현주	김정미	최문희	■ **윤경숙 목사반**
배성은	■ **신동식 목사반**	김정아	최영일	김미영
양수경	김동희	김태주	최인향	
이경자	김주영	김현정	최진아	
	송지선		한은주	
	이영문		홍승수	
			홍지영	
			황혜정	
			황호성	

1269호 201901110 게시판_925호 편성표 게시판(15면없음) 19. 11. 8. 오후 6:44 페이지 1

서빙고
02.793.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3부 오전 11:30 본당
4부 오후 1:50 본당
5부 영어예배 오후 4시 경찬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본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본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본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최용준 목사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임선양 팀장(010-9782-7733)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신상국 대표(010-7933-5422)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홀
문의: 김종수 팀장(010-7303-1603)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 8:30 선교관 403호
문의: 정종희 팀장(010-9391-7997)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홀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홀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홀
문의: 김진현 팀장(010-8567-1808)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성철 집사(010-3660-7135)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어 주일 14:00 선교관 301호
네팔어 주일 14:30 선교관 402호/매월 첫주 군포 하나로 쉼터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 / 매월 첫주 선교관 402호
페르시아어 주일 14:30 선교관 203호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30 Peace 303 / 캄보디아어 주일 10:3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따갈록어 주일 10:30 Peace 301 / 태국어 주일 14:00 Peace 303 / 스리랑카어 주일 11:3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4:00 Peace 301 / 중국어 청년 주일 14:00 Peace 304 다문화 꿈땅 주일 11:00 Star tree / 다문화 파워웨이브 주일 11:00 2F Library / 다문화 예꿈 주일 10:30 B105 / 다문화 대청 주일 14:00 4층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4:00 Peace 305 / 우즈베케스탄어 주일 14:00 1F StarTree / 파키스탄어 주일 13:00 Peace 305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10-7762-7718) 캄보디아어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3호 / 차세대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예배 주일 11:00/봉사자예배 9:30/네팔어예배 10:30 제2센터/차세대 11:00 302호

평택M센터(031-651-1702) 몽골어 주일 11:30 평택 Love Hall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집사(010-2539-5665)
나지원 팀장(010-3489-2080)

이스라엘 중보모임(샬롬이스라엘)
일시: 매주 토 오전 8시~10시
장소: 서빙고 시온홀
문의: 010-8550-7930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본관 B102호
문의: 추명희 집사(010-8000-4792)

군 선교와 군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웅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 오전 11시30분~12시 30분
셔틀운행(031-331-8182)
서빙고출발 09:30, 양재출발 10:00
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셋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명지 간사(010-5017-3146)

아프가니스탄 중보 기도모임
시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 12:30
장소: 선교관 202호
문의: 이신숙 집사 010-3212-2664

일.하.세. GUM예배
시간: 매주 토요일 8시 30분
장소: 서빙고 캠퍼스 선교관 101호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오전 10:30 신관 4층 누리홀

가나선교중창단원 모집
연습: 매주 금요일 10:00~12:30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Acts29홀
사역: 삼성서울병원, 아산병원 주일예배 성가대(월 2회, 주일 14:00)
자격: 찬양사역에 관심 있는 온누리교회 여자 성도
문의: 010-7931-7741

서빙고 권사회 버스 운전 알바 모집
분야: 천국환송예배 운전
자격: 온누리교인
조건: 대형 1종 면허
문의: 02-3215-3232

온누리교회 원두커피 입찰 시음평가회 참가 지원자 모집
일시: 11월 15일 14:00~15:00 (서빙고 온누리교회)
11월 22일 16:00~17:00 (양재 온누리교회)
모집: 장로(서빙고 2명, 양재 2명), 권사(서빙고 2명, 양재 2명)
문의: 서충관 팀장(02-3215-3176)

온누리입양공동체(제이홈) 입양 위탁 설명회
주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행
일시: 11월 17일 오후 6시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신관 2층 꿈아이홀
대상: 입양·위탁을 준비, 관심 있으신 분
문의: 오창화 팀장(010-2049-8210)

양 재
02.573.9686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채플실)
Jesus Rock 5세~초등1(충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땅: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중대부고 5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2관(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12)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청년부)
갈렙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루주 전도사(010-9150-5190)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Cristian Neira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924-2703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문의: 조현영 팀장(010-3328-6366)
*환우중보, 심방, 전도(사랑홀 환우 요청함)

양재 샬롬기도회
대상: 나라와 하나 됨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성도
매주 월 오후 7시 30분 양재 JDS홀
문의: 송세호 팀장(010-8634-9030)
*12월 9일까지 통일아카데미로 대체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 10~12시 반 경찬홀
문의: 김은지(010-3285-1726)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시간: 오전 10:30 본관 B3층 JDS홀

인도중보기도모임
일시: 매월 두 번째 월 오후 7시 30분
장소: 양재 온누리교회 충성홀
문의: 010-2735-3807

양재 창조신앙 아카데미
일정: 12월 8일~20년 1월 12일 매 주일 오후 1시 30분~3시 30분(※12/29휴강)
장소: 양재 온누리교회 강의동 302호
문의: 010-8906-4940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부 천
032.322.9686

주일예배
1부오전7:00/2부오전9:00/3부오전11:30/4부오후2:00/5부오후4:00(대청예배)/6부오후7:00(부흥예배)

새벽기도 월~토 오전5:20 본당

차세대 예배
영아부-오전 9:00, 11:30 / 유치부-오전 9:00, 11:30, 14:00
유년부-오전 9:00, 11:30 / 초등1부-오전 9:00
초등2부-오전 11:30 / 유초등부-오후 2:00
중등부-오전 9:00, 11:30 / 고등부-오전 9:00,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저녁예배 매주 오후 7:30

한사랑예배(탈북민) 매주 오후 2:00 3층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인) 매주 오전11:30 3층 꿈아이홀

어린이영어예배(JEM) 오전 9:00 기쁨홀

중국어예배 매주 오후 2:00 두란노홀

수 원
031.895.6500

주일예배
1부 오전 7:00 /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30 / 4부 오후 2:00 / 5부 오후 7:00

대학청년(주일)
대학부 오후 2시(경찬홀) / 청년부 오후 3시(믿음홀)

새벽예배 월~토 오전 5:20(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온누리워십 매주 수 오후 7:30

차세대 주일예배
영아부 오전 9시, 11:30 드림홀
유아부 오전 9시, 11:30 조이홀
유치부 오전 9:00, 11:30 소망홀
유년부 오전 9:00(초1~3), 11:30(초1~2) 사랑홀
초등부 오전 9:00(초4~6), 11:30(초3~4) 경찬홀
소년부 오전 11:30(초5~6) 믿음홀
중등부 오전 9시 비전홀 / 고등부 오전 9시 믿음홀

차세대 영어예배 오전 11:30 비전홀

대 전
042.825.3642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본당 / 2부 오전 11:30 본당
젊은예배 오후 2시 30분 본당
대학부 오후 2시 30분 누리홀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본당
토요새벽기도회▸ 매주 토 오전 6:0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00 본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본당

차세대주일예배
예꿈(36개월~7세) 오전 09:00
꿈땅(초1~초6) 오전 09:00
영아부 오전 11:30 유치부 오전 11:30
유년부 오전 11:30 소년부 오전 11:30
초등부 오전 11:30 중등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9:00

남양주
031.565.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 2부 오전 11:30 본당 / 3부(청년) 오후 2:00 본당 / 4부(저녁) 오후 7:00 본당 / 다문화 주일 11:00 4층 온유홀

외국어예배
힌디어 토요일 19:00 5층 믿음홀 / 네팔어 토요일 19:00 5층 소망홀

새벽예배 (월~토) 오전 5:20 3층 본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본당

수요부흥예배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3층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오전 11:30 2층 예꿈홀 / 유치부 오전 9:00 2층 예꿈홀 / 유년부 오전 9:00 2층 꿈땅홀 / 초등부 오전 11:30 2층 꿈땅홀 / 중등부 주일 오전 11:30 기쁨홀 / 고등부 주일 오전 9:00 기쁨홀

평 택
031.651.9680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30 본당
3부 오후 2:00 본당(대학청년)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기도모임 수요일 오후 1:30 3층 파워웨이브실
수요오전여성예배 수요일 오전10:30 본당
수요영성예배 수 오후 7:30 본당

차세대예배
예수님의꿈아이 오전 11:30 예꿈실
꿈이자라는땅 오전 9:00, 11:30 꿈땅실
파워웨이브 오전 11:30 파워웨이브실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20 본당

외국어예배
몽골어 예배 11:30 평택M센터 Love Hall
인도네시아어예배 11:00 인도네시아 쉘터

인 천
032.437.9686

성인/차세대/사랑부예배
11/3, 10, 17, 24: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종합관 3층 파워웨이브(중고등부) 예배/국제예배/사랑부 예배 제너셈 7층(송도동 179-1), 대학청년부 제너셈 7층(송도동 179-1) ※11/3 대학청년부예배는 연세대학교에서 성인3부예배와 함께 드립니다

주중예배
수요여성/수요저녁/새벽예배: 제너셈 7층(송도동 179-1)

주일예배
성인예배 9시/11:25/오후 1:45
차세대예배 영아/유치/유년/초등/사랑부 11:20, 꿈땅1부 9:00, 파워웨이브1부 9:00, 파워웨이브2부 11:20, 헤븐리키즈 오후 13:5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2시, 몽골어예배 오후 2시

강 동
02.475.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 2부 오전 11:30 본당
3부(프라미스청년) 오후 2:00 본당
프라미스U대학부 오후 2:00 사랑홀

차세대예배 (주일)
예수님의꿈아이(영아부) 오전 11:30 기쁨홀
예수님의꿈아이(유치부) 오전 11:30 두란노홀
꿈이자라는땅(유년부) 오전 11:30 드림홀
꿈이자라는땅(초등부) 오전 11:30 사랑홀
파워웨이브 오전 9:00 사랑홀
사랑부 오전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20 본당
수요오전예배 오전 10:30 본당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본당

양 지
031.331.8171

주일 성인예배
1부 예배 / 9:00 / 2층 김사무엘홀(본당)
2부 예배 / 11:30 / 2층 김사무엘홀(본당)
3부 두드림예배 / 14:30 / 지하1층 박모세홀(대청)

주일 차세대예배
드림씨드(영아) / 11:30 / 2층 드림씨드홀(본당 영상 중계예배)
예수님의 꿈아이(유아) / 11:30 / 지하1층 무어홀
예수님의 꿈아이(유치) / 11:30 / 지하1층 위더슨홀
꿈이 자라는 땅(유년) / 11:30 / 2층 아펜젤러홀
꿈이 자라는 땅(초등) / 11:30 / 2층 스크랜턴홀
파워웨이브(중·고등) / 11:30 / 지하1층 박모세홀

주중예배
새벽예배(월~토) / 5:20 / 1층 시안홀

온누리교회

http://www.onnuri.org

국내 온누리교회

•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 (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 **양재**
이상준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31길 70 횃불선교센터

• **부천**
윤길중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 **수원**
신기섭 목사 (031) 895-6500
1709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김상수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

• **남양주**
이해영 목사 (031) 565-9686~8 (대표)
11946 구리시 이문안로 154 진성빌딩 2~5층

• **평택**
손신국 목사 (031) 651-9680(대표)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흥1로 2길 61 2층

• **인천**
서경남 목사 (032) 437-9686 (대표)
21984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84번길 24 제너셈 7층

• **강동**
노치형 목사 (02) 475-9686
05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 **양지**
도육환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 **안산 온누리M센터**
노규석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기도처

• **태안온누리**
임용성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 **서산온누리**
임용성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쌍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 **봉화온누리**
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 **진새골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해외 온누리교회

■미서부

• **얼바인**
박신웅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 **로스앤젤레스**
이정엽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 USA

• **샌디에이고**
이민욱 목사 1-619-847-4147
89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 **산타모니카**
정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 **괌**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미동부

• **보스턴**
김철진 목사
1-781-933-7044
73 pine st. Woburn MA 01801 U.S.A.

• **네이퍼빌 시카고**
이중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 **노스 시카고**
서재범 목사 1-847-571-8687
10 Deerfield Rd, Deerfield IL 60015 USA

• **뉴욕IN2**
심상현 목사 1-212-427-2055
401 7th Ave.(18th Floor) New York, NY 10001

•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미북부

•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 **앵커리지**
박재영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ward HWY Anchorage, AK 99503

• **밴쿠버**
송영동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오세아니아

• **시드니**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190
18 MAIN Ave. Lidcombe NSW2141 Austrlia

• **오클랜드**
유현목 목사 64-21-0810-3132
41 Centorian Dr. Mairangi, Auckland.

■일본

• **동경**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9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 Shinjuku-ku, Tokyo, Japan

• **오사카**
이영선 목사 81-6-6121-2015
(542-0083)Naniwa 3F 1-3-19Higasisinsaibasi Chuoku Osakasi Japan

• **우에다**
하카마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3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 **요코하마**
니시야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Yao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 **야치요**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 **나고야**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AGAWA-KU SHIMAI-CHO61 EHWA DAIAMOND 2F

• **교토**
권영환 목사 81-75-748-9303
(615-0854)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ukyo-ku, Kyoto-si

■중동

• **아부다비**
김태완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irf Abu Dhabi, UAE

■동남아시아

• **베트남**
정재욱 목사 84-8-5412-2773
3SL 20-1 Grandveiw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중국

• **북경**
강부호 목사 86-10-5301-9700
北京市 朝阳区 来广营西路 江大物业(内大地公司)
Beijingshi ChaoyangQu Laiguangying Xilu Jiangdawuye (Dadigongsi)

• **단동**
채기석 목사 86-415-313-6811
中国 辽宁省 丹东市 开发区 口岸贸易区 1区 D组 102号 韩国人 教会 王英
ZHONGGUO LIAONINGSHENG DANDONG-SHI KAIFAQU KOU'AN MAOYIQU 1QU DZU 102HAO

• **대련**
강은수 목사 86-411-8228-5235
辽宁省 大连市 中山区 春园里 春海巷二巷(526路炮台山终点站)
Liaoning-Sheng Dalian-Shi Zhongshan-Qu Chunyuan-Li Chunhaijieerxiang (526lu Paotaishan zhongdianzhan)

• **상해**
박만규 목사 86-21-5422-5801
中国 上海市 闵行区 漕宝路 1243号 3楼388室
Shànghǎishì Mǐnhángqū Cáobǎolù 1243hào yǒngwèishāngwùdàshà 3lóu 388shì

• **청도**
최영민 목사 86-532-8801-2930
中国 山东省 青岛市 崂山区 香港东路69号
凯旋山庄 27号楼 1楼 网点
Zhongguo Shandongsheng Qingdaoshi Laoshanqu Xianggangdonglu69 Kaixuanshanzhuang27haolou 1lou Wangdian CHINA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이재훈

국내 온누리교회

◈**캠퍼스 담당목사**
박종길 이상준 윤길중 신기섭
김상수 이해영 손신국 서경남
노치형 도육환

◈**부목사(전임)**
강미향 강지영 권용갑 길혜영
김경훈 김관수 김대진 김도균
김도윤 김미정 김병조 김성욱
김성웅 김소리 김승수 김승완
김승훈 김영배 김영창 김요성
김용민 김윤식 김재석 김재승
김정숙 김정순 김정희 김종민
김종아 김종호 김철희 김태용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노희태
렴문홍 문영재 문장원 박시형
박성은A 박성은B 박사무엘 박성천
박세웅 박천종 박철웅 박태영
박형준 배행삼 백인규 변대섭
서 현 송석근 송재호 신동식
신원석 스티브차 안광국 양성민
양재경 여성민 오 민 오은규
원유경 웨슬리맥커리 유수열 유영순
유승현 윤경숙 윤석원 윤현규
이강현 이기복 이기원 이기진
이기훈 이길탁 이비오 이상진
이서진 이윤재 이원진 이지원
이재원 이재정 이정환 이종현
이준인 이준호 이찬우 임경헌
임용성 전신익 전재표 정상훈
정한효 정현석 정형권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준목 조현수
조호영 지대근 최성민 최성석
최승구 최용준 최혁중 한화수
홍기완 허원희 황재명 황종연

◈**전도사(전임)**
김기락 안사무엘 이우람 정성진
최대흥 최성규 한은선

◈**경배와찬양 목회자**
하스데반 박이호

◈**협동목사**
김도일 류모세 방선기 이기복
한정국

◈**부목사(파트)**
김기범 김바울 김세현 김종영
김창성 김혜경 네트라 넬슨제닝스
렌디빼당쥴렉스 마주마누룽 민현식 바랏라살리
박씨마 서수민 싱루아마놉 안희진
이원준 이진이 유승덕 유진아
윤치연 임선아 제인량 최일관
차제이미 크리스티안

◈**전도사(파트)**
강성효 고주민 권은영 권영현
김근희 김경민 김두일 김세환
김승겸 김수영 김앤드류 김은하
김은혜 김유민 김용태 김영신
김정미 김정호 김지선 김지환
김진성 김주영 김종균 김충성
김태영 김태주 김태환 김태희
김한국 김형중 김형태 나지혜
니시다토모코 노태규 민희준 민혜영
박근명 박미애 박신광 박승홍
박영규 박이호 박지수 박현식
방세미 빌 케 배강석 배명지
백운진 서영찬 서영철 소바 수누와르
송동주 송선애 송우항 신대종
신동욱 신하선 신현민 신현아
양주영 양진범 여지휘 연공주
오국헌 오명도 오영민 오준현
오현석 우승민 윤경선 윤상복
윤수신 윤슬기 윤지은 윤준석
윤효정 이루주 이민아 이민희
이명진 이보라 이상관 이상은
이신임 이선영 이성광 이세영
이수호 이엘렌 이용민 이은정
이진기 이호준 이현석 이향순
임광명 임송아 임지성 임정민
장광석 장미숙 장새힘 장윤진
장재원 전소리 정에스더 정연상
정영광 조준기 주영상 주하늘
지수정 최규종 최은영 최선재
최영빈 최정현 최종현 최휘준
하성희 한영철 허루슬란 현신원
황귀희 황연신 황유일 khag-vasuren Gan-Otgon Donald Joshua Wabwire

◈**사역장로**
강기석 강인지 강찬석 고광필
구재영 권도원 권영석 권칠준
김경선 김경철 김광동 김광선
김기호 김남열 김명철 김석인
김선래 김선택 김성묵 김성순
김수광 김수역 김수웅 김승열
김영수 김용성 김 웅 김원규
김원균 김원중 김윤식 김이곤
김인화 김종건 김종성 김종승
김주흥 김진국 김창욱 김철수
김하중 김학모 김현철 노재한
노흥규 류지영 문창극 문형남
박 공 박병익 박상송 박영태
박용국 박찬빈 배종수 백승웅
백호현 상병선 서진봉 서찬교
서창희 성창섭 손한기 송만석
송영태 송유신 송일섭 송재길
송창도 신만인 신우권 심재욱
심창구 심춘보 안국영 안종인
안태환 양재수 엄태진 오성연
우광방 원우현 유완영 유재천
윤성열 윤영섭 윤영오 윤지준
윤형주 이강범 이건재 이국주
이두송 이만식 이무웅 이병현
이상욱 이영걸 이영세 이영철
이옥연 이용경 이용하 이우곤
이융대 이재준 이재호 이종순
이창남 이한열 이현조 이화영
이희주 임광택 장양희 전구영
전장하 정강무 정돈영 정병균
정보원 정순풍 정영열 정용화
정윤채 정재탁 정재현 정희태
조규상 조성근 조항진 주수일
주웅일 차승철 천영무 최 명
최선수 최진성 최창규 최창수
최충길 최희영 피터웰디 하영철
하용기 한규종 한종대 한형식
함선호 허형석 홍기명 홍덕표
홍종철 황영옥 황용오 황재규

◈**시무장로**
강동수 강부순 강신익 강영재
강의선 강철호 강태욱 고다이라
고영주 곽진성 권득한 권오습
권오혁 권용성 권용한 김관근
김관식 김광하 김기영 김남식
김도영 김동언 김두진 김만순
김명세 김명종 김명현 김명훈
김병순 김병옥 김상섭 김상인
김상집 김선호 김성균 김성종
김성진 김연상 김영욱 김영한
김영환A 김영환B 김 완 김용기
김용호 김웅배 김 원 김의득
김인선 김장열 김재욱 김재일
김종호 김준규 김준영 김준용
김준홍 김지현 김지홍 김철민
김철주 김태경 김해기 김형겸
김형식 김형중 김화수 김효구
나상권 나 영 나영욱 남명현
남상길 남상옥 남정진 노기홍
류기범 명영찬 문성기 문쌍찬
문영기 문창호 문충실 문현구
민문기 박구병 박균명 박대호
박덕현 박동현 박두원 박명균
박명률 박봉래 박석봉 박성규
박성근 박성호 박순길 박승우
박영국 박영태 박영한 박우형
박일구 박일면 박일환 박종현
박지수 박치완 박태성 박해한
박현규 박형민 박흥균 박흥선
방찬종 배 문 배기영 백남인
백홍기 서달석 서명수 서병화
서성렬 서성현 성주명 손기철
손정래 손태용 송동섭 송영범
송종환 송호철 신동기 신무환
신민호 신 섭 신영각 신학철
신헌승 신현종 심길섭 심상달
심희돈 안동혁 안성영 안용태
양상식 양유식 양주현 양춘경
양충식 오상록 오성훈 오이식
용내문 우승구 원종호 유병진
유병훈 유의준 유재홍 유 형
육동건 윤기홍 윤석우 윤영각
윤현덕 이경찬 이경호 이경훈
이관수 이광순 이광형 이규천
이기증 이길수 이남수 이남식
이동규 이동욱 이동희 이백용
이봉의 이상기 이상도 이상율
이석일 이수완 이승배 이영근
이영복 이영찬 이은일 이인용
이장로 이재경 이재광 이재규
이정구 이정근 이종길 이종우
이종우 이종철 이 철 이태열
이태환 이해달 이헌규 이홍선
임광순 임병수 임정열 임현태
임호열 임 훈 임희창 장경문
장경식 장 광 장광열 장규환
장선철 장형준 전영수 전한백
정광열 정대서 정명호 정문규
정상기 정수업 정영규 정영기
정영주 정영택 정운섭 정운오
정진하 정진호 정태경 정파종
정학영 정희원 조대식 조대희
조병현 조성현 조성현 조성환
조진호 조청구 조희동 주재량
진종구 차준구 차준한 최도성
최득린 최민철 최봉림 최상근
최석민 최성완 최주관 최한우
최현재 편무옥 하성기 한갑수
한덕종 한백진 한상규 한양희
한왕석 한창격 한충희 함공식
함일성 함정철 허광수 허복만
허영남 허필우 호종일 홍범식
홍성호 홍의택 홍정표 홍충선
홍해남 황병원 황윤일 황의서

◈**명예장로**
마흥규 문태준 박동순 양원명
이용만 이원로 이혁상 임대지
장옥룡 장응복 정광택 정병주
정상건 지성한 채수삼 최창걸
황용식

◈**협동장로**
강승모 김갑선 김정훈 김 준
남영태 류수광 리차드브릭스 박자인
박형규 양호승 우상근 유재건
이경희 전태경 정지석 주치수
최대화 최원호 최종훈 추교명
함지언 황재익

◈**성가사**
강순영 강중현 강혜영 김기덕
김건주 김병우 김병오 김세일
김정겸 김정환 김지형 김혜경
김형준 김희정 남윤창 박용규
박정규 손창우 송정희 신수정
신준환 오승현 오지훈 오희경
유선애 윤은희 이미선 이명근
이신영 이수정 이성민 이세미
이수연 임진순 조익현 전병곤
전지영 정성미 채미현 최경열
최영은 최윤석 최지선 최재영
최혁재 최혜경 최훈희 홍용식
현상준

◈**반주자**
김기아 김병성 김선경 김성규
김수현 김순인 김연아 김은경
김은섭 김은실 김은영 김인영
김주나 금민희 남궁진 노성희
박선희 박 숙 박영숙 박진용
방 휘 서 원 석지혜 송효빈
신은혜 안은경 안은영 안지연
양지연 양현선 염주희 우경진
유재경 유지영 윤정희 윤현진
이강석 이나래 이예나 이예은
이예진 이혜진 정경미 정다혜
정지은 조영혜 조한나 최은미
최희정 황보승 한찬미 황대준
허윤선

해외 온누리교회

◈**담당목사**
강부호 강은수 권영환 김철진
김태완 박만규 박신웅 송영동
유현목 이민욱 이영선 요시하라
마나부 전현규 정재욱 정호석
채기석 최영민 니시야마 신이치
하카마타 미키 후쿠자와 마키토

◈**미주OMA담임목사**
김형철 마크최 박재영 서재범
심상현 이성권 이정엽 이중재
정장철

◈**부목사**
강일영 강일하 강찬호 금동섭
김도일 김동은 김명성 김인숙
김시연 김성종 김진우 김재형
김찬우 김태환 노경호 박대원
박수환 박주영 박종훈 방지남
배성우 백도훈 백인호 변범섭
서성광 신영흠 손미경 엄영기
우윤상 유동우 유정훈 이경호
이미령 이성영 이은택 이한규
이형근 임봉순 오정택 전상현
전홍천 정동윤 정승철 정용환
조수정 조의환 진영국 최영진
최 욱 최정무 홍동욱 홍성훈
홍세반 홍정표 Bob Koo Joseph Chu Joe Lee Michael Lee

◈**전도사**
강은주 김성민 김성연 김성진
김성현 김인혜 김정옥 김지현
김진완 김창식 김현경 구혜선
마커스 문하나 박미은 박유리
박종구 박지혜 박향진 박현욱
배윤희 서재욱 설산정 손주은
송민선 신기원 심형진 안대진
안지현 이민혜 이상수 이수연
이은희 이용기 이재경 이주영
이현우 임지훈 윤성민 장성진
장세윤 장유미 지자영 전희동
정 결 정선진 정은숙 정인교
정진영 지자영 조 단 최정수
최지연 최진숙 하보라 하정훈
한현희 코바야시 메구 핸슨오
Christine Daniel Kim Shin David Kim JeanaLee Jeff Yoo Jonathan Kim Rachel Back SamLee Tommie Njobvu

◈**장로**
고성환 권덕수 김경덕 김수호
김재동 박호택 백 학 손진성
손정래 신중수 이광철 이덕한
이문호 이상덕 이상헌 이준상
여훈필 장민용 장우진 조규배
조성민 허규회 홍관희 홍규석

◈**명예장로**
김용석

◈**협동장로**
강광일 강봉림 김경문 김동민
김명훈 김연수 김현중 정두호
정석환 최승호 윤한돈 윤창근
이정기 이재원 임헌식 서인택
최태영 김종수

◈**성가사**
고양숙 김성수 김용재 김정보
김좌겸 김준걸 김진용 남명호
박민규 박선영 박소영 박우람
송희경 이지은 엄지영 여훈필
염혜숙 우아경 유기열 이정민
이정우 이종현 정영진 정현경
조경화 조요셉 홍현철 황애란
황진주

소천

11/1(금) 일산최민준 성도 모친상 고 양현숙
11/1(금) 서초B 권유민 성도 모친상 고 유시남
11/1(금) 서초C 오정란 권사 시부상 고 이은복
11/1(금) 시니어아카데미 김명수 성도 부군상 고 한인규
11/2(토) 분당B 민병훈 성도 부친상 고 민영식
11/4(월) 강남A 김주홍 집사 모친상 고 김영희
11/4(월) 서초A 신동일 집사 부친상 고 신부철
11/4(월) 브릿지33플러스 한소영 성도 부친상 고 한철현
11/4(월) 이촌강은실 성도 모친상 고 노추월
11/4(월) 성동광진이정미 성도 시모상 고 황응옥
11/4(월) S브릿지 정봉수 성도 부친상 고 정운층
11/5(화) 분당B 심준석 집사 빙모상 고 김정숙
11/5(화) 도곡 이진신 성도 모친상 고 배경숙
11/6(수) 서초D 고 임동훈 성도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이인용
편집부장: 김남원
기자: 정현주, 김현준, 김영선, 홍하영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3215-3193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온누리 복지재단

군포하나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청소년 입소,입교생 모집
내용: 가출 및 가정복귀가 어려운 남자청소년 쉼터 입소 및 하나로꿈학교(교육청 지정 대안학교) 입교
대상: 입소생(15~20세) / 입교생(경기도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문의: 유호연 팀장(031-399-7997)

온누리요양센터 및 자원봉사자 모집
내용: 찬양, 성경읽기 등 봉사자 모집
문의: 이진욱 복지팀장(031-334-9090)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55세 이상 지역주민 무료취업 지원
신청자격: 서울시 거주 만 55세 이상 구직자(신분증 지참 방문 접수)
주요직종: 경비원, 청소원, 요양보호사, 주차관리원, 조리원 등
문의: 박나희 사회복지사(02-796-7665)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배식 및 설거지 봉사자 모집
내용: 11:00~14:00 / 점심식사 제공
문의: 김예진 사회복지사(070-7163-2465)

청파노인복지센터 경로식당 봉사자 요청
활동일시: 화, 수, 목 9:30~14:30(식사시간 포함)
문의: 이기엽 팀장(02-703-6011)

번동코이노니아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자원봉사자 모집
문의: 이영환 팀장(02-985-3609)

재 정

십일조 계좌: 하나은행 573-810034-10105
해외선교계좌: 하나은행 573-810034-09105
비전의땅 헌금: 하나은행 573-910001-23005
* 은행계좌로 송금시 이름과 주민번호 앞 네 자리 또는 여섯 자리(김모모501010)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 담

■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선교관 지하 1층)
상담접수: 02-793-2997~8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면접상담: 신앙과 심리상담(개인, 부부, 아동, 청소년, 가족)
심리검사: 각종 심리검사, U&I(학습 성격 유형/진로 검사)
특수상담: 법률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30~12:00
인터넷 중독 상담

■ 양 재

온누리상담센터(원형커피숍자동문안쪽)
상담접수: 570-7536~7(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영어 상담 가능)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유 프로그램
법률 상담: 일요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세무 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결혼

11월 16일 토요일 오전 11:00 서빙고 본당
황재명, 박은경(온누리 교회 목사, 사모)의 아들
황지우(온누리교회)
황인각, 이정애(삼일교회 집사)의 딸 황은영(온누리교회)

11월 16일 토요일 오후 2:00 서빙고 본당
김명동, 이옥경의 아들 김주현(온누리교회)
조규하, 김윤숙(인현교회)의 딸 조인정(온누리교회)

11월 16일 토요일 오전 11:00 양재 사랑홀
노영화, 신인수(백주년기념교회 장로, 권사)의 아들
노요섭(온누리교회)
김종무, 최근숙(새문안교회 집사, 집사)의 딸
김수연(온누리교회)

11월 16일 토요일 오후 2:00 양재 사랑홀
김기경, 양순례(온누리교회)의 아들 김지홍(온누리교회)
故 송만생, 우찬주의 딸 송수경(온누리교회)

1269호 201901110 게시판_925호 편성표 게시판(15면없음) 19. 11. 8. 오후 6:44 페이지 3

CGNTV

표인봉,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독서의 계절,
저자가 직접 들려주는
책 속에 담긴 은혜를 만나보세요.

주일 오후 5시 40분 방송

11월 10일

수상한 큐티

- 이정현 목사

22년간 교회학교를 섬기며 수험생 큐티집을 집필한
이정현 목사에게 듣는 다음 세대를 향한 사명과 비전

11월 17일

스물두 살 태훈이

- 박상미 작가

청년아기인 자폐아 아들과의 일상을 통해
위로와 감동을 담아낸 박상미 작가의 그림일기

11월 24일

내 나이가 나를 안아주었습니다

- 신은경 교수

삶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전 아나운서
신은경 교수의 나이 들수록 멋지게 살아가는 법

정기후원 [KEB하나은행 573-910002-67804] **ARS** 060-700-1660 **문의** 02-796-2243